

中文里 學術調查

日 時：1975年 8月 18日～22日

地 域：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分 野：社會背景，方言，信仰，說話，民謠，遺物・遺蹟，海女

머 리 말

本國語國文學會가 每年 實施하여 온 現地 學術調查도 今年으로 第四次에 접어 들었다. 여기 그 調查報告書로서 國文學報 第七輯을 刊行하게 되었다.

現代 科學文明 속에, 날로 消滅되어가는 傳統文化의 現場을 찾아, 살아 있는 民族文化의 자취를 캐고, 貴重한 學術資料를 수집 조사 정리한 調查報告書와, 그 동안 約 一年間의 學究的인 研究業績 등을 한 자리에 總集成함으로써, 一年에 걸친 本學會活動의 紀念誌가 될 것임을 自負하여 본다.

이번 第四次 調查 對象地 選定은 지난 第二次, 第三次가 다 島嶼 地域이었으므로, 今次는 中文面 中文里 一帶를 選定하였다. 特히 中文里 一帶는 政府가 計劃하는 綜合 觀光開發 豫定地域으로 傳統文化에 對한 調查 整理가 時急한 形便이다.

本 調查團은 8名의 指導教授와, 32名의 學生이 參加하여 8月 18日부터 8月 22日까지 5日동안 調查했다. 三伏의 무더위 속에서 調查團員들이 각기 該分野의 調查를 爲하여 비지땀을 흘려가며 東奔西走하는 眞摯한 모습에는 참으로 흐뭇함을 느꼈다.

그러나 日程의 制約 등으로 調查에도 未洽한 點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되나, 여기 그 調查한 資料를 한데 모아 이만한 報告書를 내게된 것은 오로지 現地 여러 機關 및 住民들께서 協助와 後援하여 주신 德分이윽기 깊이 感謝를 드리며, 特히 本 調查團의 寄宿所를 提供하여 주시고 便利를 보아 주신 中文國民學校 校長先生님께 깊은 謝意를 올린다.

社 會 背 景

指導教授	玄	容	駿
班 員	姜	泰	日 (國三)
	金	東	根 (國一)
	高	熙	周 (國一)
	朴	喆	岩 (國一)

目 次

I	自 然 環 境
II	史 的 背 景
III	人 文 概 況
IV	產 業 構 造

【 自 然 環 境 】

中文里는 南濟州郡 西歸邑과 安德面의 中間에 位置한 中文面의 所在地다. 下洞인 星川洞이 海岸에 隣接해 있고 마을의 北端은 南·北郡境界線까지 펼쳐있어서 南北이 길이는 꽤나 길지만 東西의 幅은 불과 1.2km정도 밖에 안되는, 南北으로 길쭉한 마을이다. 集落을 中心으로 하여 東은 河源里에, 西는 上猊二里, 西北은 橋達里, 西南은 上猊一里, 南은 大浦里, 東北은 廻水里에 둘러싸여 있다.

古老들의 말에 依하면 <새카름 집터>는 배의<한장>이요, <알집 집터>는 닻가지에 해당되고 <두어물 동네>는 <멧네 밭술>(배 메는곳)이고, <갑시리 동산>에 있는 <땅돌>은 닻줄을 사러놓은 형치가 되므로 마을의 地勢는 「배형국」이라고 한다.

傾斜가 완만한 이 마을에는 <녹화지악>과 <거린사슴>, <법정악>

이 있고, 星川峰은 <동오름>·<섯오름>·<만지섬오름>의 三個의 峰으로 形成되어서 三台星形이라 하며, <원동산>·<열녀문동산>·<치돌이동산>·<감시리동산>·<족은동산>·<빈지동산>·<스만동산> 등의 조그마한 동산이 마을에 散在해 있다.

星川洞에 인접한 海岸線은 比較的 單調로운 편이며 <황토기정>과 <붉은덕기정>이라는 斷涯가 있는데 높이가 어마어마하여 보는 사람들은 眩氣症을 느낀다고 한다. 해안가에 모래밭은 없으며, 은빛 모래가 펼쳐있는 有名한 海水浴場은 穡達境에 屬한다.

食用水로는 <군물>·<백귀물>·<만지섬물>·<두어물>·<감수물>·<天帝水> 등이 있는데 지금은 <天帝水>를 除外하면 廢水되었거나 雨期에만 물이 난다. 中文里의 古名이 중물(僧水)이라는 것을 보면 물이 꽤 어려웠음을 말해주는 듯하지만 지금은 上·下水道施設이 完備되어 食用水는 풍부하다.

聚落은 일주도로에서 2km 南쪽인 星川洞과 5km 北쪽인 士坐洞을 除外하면 일주도로 沿邊을 따라서 密集되어 있다. 또한 農耕地는 里面積이 적기 때문에 自然히 穡達·廻水·大浦 등지에 많이 分布되어 있고, 그중 畚은 主로 星川洞에 局限되어 있다. 牧野地는 <녹화지막>을 둘러싼 250ha의 共同牧場이 있으며 農耕地를 벗어난 北部에 <하갯>이라는 草地在 있다.

樹種은 여느 마을과 비슷하다. 옛날에 흔하던 동백나무·대나무 등은 거의 없어졌으며 군데군데 팽나무가 있고, 소나무는 마을 밖을 벗어나면 흔하지만 마을안에는 果樹園 防風用으로 삼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왔다. 動物로는 <수>·<족제비>·<노루> 등은 보기 힘들지만 꿩이나·뱀·오소리·지네는 많은 편이다.

바람이 비교적 적고 氣候가 溫和하며 土質을 肥沃해서 果樹業이 急盛하고 있다.

觀光地로 有名한 天帝淵은 中文里와 穡達里의 境界에 位置하여 있고 天然記念物 182의 2號 地區로 指定되어 있는데, 5931坪의 保護區域內에는 百餘樹種과 三段瀑布가 調和를 이루어서 可히 壯觀을 이룬다.

Ⅱ 史 的 背 景

中文里는 지금으로부터 389年前(A D. 1586年, 宣祖 19年) 羅州에서 將仕郎 兼 訓導를 지내던 鄭鳳이 壬辰倭亂을 避해 入島하여 지금의 中文國民學校 동북쪽(俗稱 군물)에 定着함으로써 비로소 設村 되었다. 當時 鄭氏는 天帝淵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하루는 靈室로 가던 중이 鄭氏 집에 留宿하고는 물이 貴한 事情을 듣고 여기(군물)를 파면 물이 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이 말대로 그 곳을 파니 물이 나왔는데 이런 史實에서 由來하여 里名을 「중물(僧水)」이라 했다 한다. 後 文氏가 移住해 살면서 「중문(僧文)」或은 「鄭文」이라 해오다가 土坐洞과 星川洞의 中間에 位置한다 하여 中文으로 改名했다고 傳하지만 異說이 많은 것을 보면 訛傳되거나 아니면 後世人的 僞作인 듯하다.

鄭氏와 文氏의 氏族部落의인 性格을 지녔던 이 마을은 李氏, 金氏, 姜氏, 高氏 등이 차차 入住하면서 갑자기 肥大해져서 지금은 795家口에 3,298名이 사는 큰 마을이 되었다.

李朝 末葉 通政大夫이며 大靜郡守이던 蔡 龜錫氏가 部落民을 動員하여 天帝淵水를 星川洞까지 끌어 내리는 불골을 파게 하고 五萬餘坪의 田地를 開墾했는데 그 功蹟碑가 天帝淵 옆에 서 있다.

한편 李朝 中葉 天帝淵 東쪽에 「中文院」이 있었는데 濟州牧使가 巡行할 때 이 곳에서 國馬를 點檢하며 武士들을 모아 射術을 試驗하였다고 하는데 任 觀周는 天帝淵 西쪽 岩壁에 그 光景을 다음과 같이 描寫 記錄해 놓았다.

天地淵開大瀑流
移來叢石壁深湫
空中負箭薊人步
第一奇觀此射帳

<丁亥季秋>

또 一股瀑布에는 밤에 仙女들이 내려와서 沐浴하고 昇天하였다는 傳說이 傳해지고 있다.

韓日合邦이 되면서 部落共同體的 組織이 變했는데 그 組織을 보면, <수 으뜸>인 鄉長·<부 으뜸>인 警民長·<삼 으뜸>인 尊位長이 있었고, 그 밑에 <五所任>이라 하여 農監, 譏察, 迎官, 洞將과 임놈(下輩)이라는 使換이 있었다. 이중에 鄉長은 部落에서 候補 三名을 推薦하면 官에서 適任者를 가려 任命했다 하며 餘他 下位職은 鄉長이 任命했다고 한다. 이웃 部落인 倉川里와 比較할 때 迎官이 더 있는 것이 特異하다.

이런 部落共同體的 組織이 里長 中心의 近代行政體制로 바뀌어지면서 中文里를 一區와 二區로 分割했었다. 4·3사건으로 土坐洞民들이 疎開되었고 一·二區를 廢合하였다. 15年前 다시 東部와 西部로 便宜上 分割하였고, 이에 따라서 東部里長과 西部里長制度를 마련했다. 1970년에는 副里長制度를 新設했고, 아울러 葬禮組單位로 六個洞으로 分洞해서 六名의 洞長을 두었다. 어느 마을과 比較할 때 副里長制度는 特異한 것이다.

■ 人 文 概 況

中文里는 三個의 自然部落이 하나의 行政里가 되고 있다. 本洞(集落中心의 本里)을 비롯하여 5km 떨어진 土坐洞과 2km 떨어진 星川洞이 各各 自然部落을 形成하고 있다.

現在 이 마을에는 795家口가 있으며 人口는 3,298名(面事務所 統計)이다. 따라서 戶當平均人口는 4.15人으로서 濟州道 戶當 平均 4.6人에 比하면 낮은 편이고 安德面 倉川里 3.94人에 比하면 약간 많다. 中文面에서 둘째 큰 江汀里가 人口 2,159名인데 比하면 中文里의 人口는 거의 1.5배가 되므로 상당히 큰 마을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住民의 性比는 女子 100人에 對하여 男子 97人으로서 全道的인 性比(100:92)에 比하여 별 差가 없다. 住宅所有狀況을 보면 總住宅 799棟으로서 家口當 一棟을 所有하는 셈인데, 이는 全道的인 特性으로서, 分家(核家族化)가 잘 된 것으로 풀이 된다.

住民의 姓氏構造를 보면 表 <1>과 같다.

〈表 1〉

住民의 姓氏別 集計

住 氏	金	李	姜	吳	朴	元	高	鄭	文	林	梁	其他	計
家口數	191	128	62	34	26	26	93	19	7	10	10	94	700
%	27.3	18.3	8.9	4.8	3.7	3.7	13.3	2.7	1.0	1.4	1.4	13.5	100

※ 調査된 700戶에 한하므로 實際와 좀 다름

表<1>을 보면 마을을 設村했던, 鄭氏는 2.7%, 文氏는 1%밖에 안 되는 것은 特異한 事實인데 이는 設村한 鄭氏와 文氏가 後孫代에 와서 分派한 데 基因한 것이다. 한편 金氏가 27.3% 李氏가 18.3%나 차지하며, 모두 45姓氏가 있으니 多姓集合의 都市的 性格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옛날의 人士로는 李朝 中葉에 晝堂 訓長을 하면서 81才까지 科擧에 應試하여 年老한 落榜擧子의 心懷를 「身年九九 落榜三三」이라는 詩句를 써서 及第했는데, 參判教誨가 死後에 到着하여 死後參判이 되었다는 金命獻, 虎體鷹目이었다는 <우우남 밭> 李訓長 등이 있었다. 오늘날의 人士로는 대신개발 代表 李錫柱氏, 稅務署 直稅課長 李性柱氏, 中央情報部 濟州支部 企劃官 李昌憲氏, 南郡教育廳 獎學士 李致根氏 등이 모두 近親間의 名士들이며 이 외에도 現 中文面長 안두혁氏, 統一主体代議員 兼 中文單位農協 組合長 高才龍氏 등이 있다.

中文里內 所在의 機關은 表<2>와 같다.

〈表 2〉

中文里所在 機關

機 關 名	職員數	備 考
中文中學校	29	1名 兼職
中文綜合高等學校	15	
中文國民學校	21	
中文面事務所	22	
中文里事務所	4	里長1 副里長1 書記 2
西歸浦警察署 中文支署	8	
中文郵遞局	17	分局包含

中文單位農業協同組合	18
中文公醫診療所	2
天帝淵管理事務所	4
韓電 中文出張所	4
西歸柑橘組合 中文出張所	4
南濟州郡農村指導所 中文支所	4

上記한 機關中에 里事務所와 天帝淵管理事務所를 除外하면 一周道路 沿邊에 密集해 있다. 1927年 左面 普通學校로 開校한 中文國民學校는 現在 18學級, 1,256名이 在學中이며 學區는 中文, 穡達, 大浦, 廻水로 되어있고 穡達里에는 分校가 1969年 9月에 設立되었다. 中文中學校는 1945年 開校하여 現在 17學級 1138名이 在學中이며, 1966年 開校한 中文園藝高等學校는 1972年 中文綜合高等學校로 改名, 道內의 唯一한 綜合高等學校가 되었는데, 人文科와 園藝科의 二個學科 6學級 335名이 在學하고 있다. 中·高校 모두 男女共學으로 같은 區內에 있고 校長선생님은 한 분이 兼任하고 있다.

1912年 開設된 西歸浦 警察署 中文支署는 1968年 建物を 新築 移轉했고 義勇消防隊를 設置 隊員 30名을 選定하여 有事時에 動員 活躍케 하고 있다.

1955年 開局한 中文郵遞局은 1966年에 電話交換員을 두어 現在는 163대의 電話業務를 擔當하고 있으며 1973年에는 狹來分局을 新設했다. 1970年 12個 里·洞組合을 合併한 中文單位農協은 1971年 10月부터 연쇄점을 經營하여 農資材 및 日用品을 販賣하고 있다. 1975年 開所한 南郡農村指導所 中文支所는 面事務所 構內에 事務室을 두었다. 西歸柑橘組合 中文出張所는 1974年 8月 創設하여 1975年 4月에는 安德駐在所를 두었으며, 韓電中文出張所는 1968年 12月에 設立되었고, 漁村契는 中文里와 穡達里가 共同組織했는데 契員은 47名이며 諸般 事情으로 活動이 微弱한 실정이다.

1971番地에 公醫診療所가 設置되어 月 2回씩 無料診療를 實施하고 있다 하지만 住民들은 發病時 西歸浦等地로 大部分이 治療하러 간다고 한다.

그 밖의 團體로는 S.O.D(Service of one day) 青年會·婦人會·開發委員會·四H俱樂部·農村生活改善俱樂部·農事改良俱樂部·越南參戰戰友會 등이 있다.

집(契)은 <술집>·<그릇집>·<면화계>·<화장대집> 등이 있는데 주로 農家에서 洞別組織을 가지며, 日收會는 商家에서 大部分 10名單位로 組織되어 있다.

文化施設로는 1963년에 創設한 300席의 劇場이 있고, T·V는 113台가 있으며 電話는 163台, 水道는 369전이 있다. 新聞은 韓國日報·朝鮮日報 中央日報·濟州新聞·濟南新聞의 普及所가 各各 있고, 時計와 電氣는 各家庭마다 거의 具備했으며 4 군데의 電波社가 있는 것을 보면 전축도 상당량이 있을 것으로 推算된다. 이런 점으로 보아 中文里는 都市에 가까운 文化水準을 짐작할 수 있다.

中文里에는 旅館(3)·茶房(2)·食堂(8)·記念品店(3)·寫眞館(2) 理髮館(4)·美容室(2)·藥房(4)·農藥房(2)·雜貨商(7)·布木店(2) 時計店(1)·電波社(4)·工業社(4)·방집(3)·化粧品店(2)·鐵物店(2) 그릇집(2)·服裝社類(8)·家具社(1)·食肉店(2)·발집(4)·기름집(2)·신발집(2)·漫畫房(2)·洗濯所(2)·구두방(1)·명찰집(1)·代書所(1)·유리·도장점(2)·정미소(1)·貨物取扱所(1) 그리고 수많은 구멍가게에다 3일과 8일에는 5日場이 서서 住民들의 生活은 便利하며 여느 農村에 比하면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通婚圈은 里內는 勿論, 隣近部落, 安德, 西歸等地에 主로 分布를 보이는 데 옛날에는 中文里는 兩村이라 하여 兩村인 大浦·河源과는 사돈관계를 맺지만 穡達·道順은 <武村>이라 하여 通婚이 드물었다 한다. 結婚에 <이바지> 풍습과 紗帽冠帶를 쓰는 舊式 結婚禮式은 約 40年前에 없어졌다 한다.

葬禮組(골)는 여섯 <골>인데 한 <골>에 5個班씩으로 되어 있다. 葬地는 共同墓地인데 2,500坪의 舊共同墓지가 다 차 버렸으므로 지금은 455番地와 457番地에 新共同墓地 5,634坪을 다듬어 埋葬하고 있다. 보통

5 일장을 지내며 소비절약운동은 잘 되어가는 편이다.

寺刹로는 光明寺와 天帝寺가 있고, 예수教會와 天主教會가 1個씩 있어서 住民들의 信仰生活은 多樣한 便이다.

6月 初丁日에 實施하던 農酬祭와, 別異한 일이 생길때 지내던 別祭는 出盤(祭儀 終了後 各家戶에 祭物을 分配하는 일)에 대한 不平이 생겨서 30年前 廢止했다 한다.

交通은 一周道路가 集落 中央을 貫通해서 좋은 편이다. 濟州市 出入은 日前엔 西廻線 버스를 利用했지만, 5·16道路의 開通後는 이 길을 利用해 오다가 75년부터 第二橫斷道路가 개통되자 住民들은 마을과 直結된 第二橫斷道路를 운통 利用하고 있다.

中文里는 濟州道 觀光綜開發計劃 主要對象地의 하나다. 農村이 都市로 變貌하는 過渡期의 小都市의 現實에 處한 住民들은 觀光地 造成에 따른 土地損失, 高度의 消費傾向, 青少年의 放蕩, 地域住民들의 人格變化 等 觀光地 造成後의 피해를 豫見하며 憂慮하고 있다.

Ⅳ 產 業 構 造

中文里는 農業이 主인데, 近來에 붐을 일으킨 果樹業, 그리고 商業 및 漁業等 各種產業이 綜合化되어 있는 部落이다. 그러나 漁業은 星川洞 10餘家口에서 農漁兼業의 形態를 取하고 있어서 比重이 微細한 便이고 商業을 위한 서비스업은 擴張一路에 있는 實情이지만, 主產業은 果樹業을 兼한 農業이다.

中文里的 耕作規模別 農家戶數는 <表3>과 같다.

<表 3> 耕作 規模別 農家戶數 1974年 面事務 所統計

區分	1반보 미만	1~3 반보	3~5 반보	5~10 반보	10~15 반보	15~20 반보	20~30 반보	30반보 이상	計
戶數	9	71	98	144	114	71	33	10	550
百分比 (%)	1.7	12.8	17.8	26.4	20.7	12.8	6	1.8	100

戶當平均 耕地面積은 9.4反步가 되므로 全濟州道 平均 耕地面積 8.5反步에 比하면 많은 便인 데다 農土가 比較的 肥沃하고 氣候가 適當하여 食糧 自給自足은 잘 되고 있다.

여느 마을과 같이 主要 耕作物은 보리와 조인데 豆類, 雜穀類도 많이 재배하고 換金作物인 고구마, 유채는 特히 많이 재배하며 채소나 特用作物도 꽤 많이 栽培한다. 全道的으로 盛行하는 果樹業은 333家口(3反步以上 100家口, 그 以下 233家口)에 栽培面積은 150ha에 이르고 있다.

家畜保有狀況은 表<4>와 같은데 韓牛의 戶當 保有率은 0.67頭로서 濟州道 農家戶當 保有率과 맞먹는다.

젖소를 13家口에서 사양하고 있음은 他農村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表 4> 家畜 保有 狀況 단위 : 마리, (양봉 : 상자)

區 分	한우	젖소	말	토끼	닭	오리	양봉
사양양구	223	13	11	17	68	4	9
♀	329	6	19	22	1318	11	165
♂	214	7	8	14	97	1	—
計	543	13	27	36	1415	12	165

1974年 面事務所 統計

한 가지 添言할 것은 單一生業만 經營하는 家口는 極히 드물다는 점이다. 大部分 農漁兼業, 田作에 果樹業을 加한 形態들이고, 商家나 공무원들도 果樹業을 비롯한 다른 副業을 兼하기 때문에 所得은 많은 편이다. 住民들은 勤勉하지만 그래도 일손이 딸리는 실정이다.

方 言

指導教授：姜
金
班 員：高
洪
洪
梁

根 植
洪 希 (國二)
碩 和 (國二)
詰 豪 (國一)
在 碩 (國一)
仁

調査對象者

李 해 생 (女：65才)	高 應 浩 (男：76才)
李 桂 彦 (男：60才)	金 東 殷 (男：65才)
오 힘 연 (女：55才)	고 정 봉 (女：65才)
양 정 란 (女：8才)	오 형 수 (男：10才)
김 미 생 (女：9才)	고 복 길 (女：9才)

目 次

- I 牧 畜 語 彙
 - 1) 牧 場 名 2) 山林地域
 - 3) 語 彙 4) 烙印에 대하여
- II 狩 獵 語 彙
- III 漁業器具 및 漁名
 - 1) 語 彙
 - 2) 漁名 및 海藻類名
- IV 風 名
- V 潮 水 名
- VI 身 體 名
- VII 娛 樂 名
- VIII 昆 蟲 名
- IX 人 事 語 彙

I 牧 畜 語 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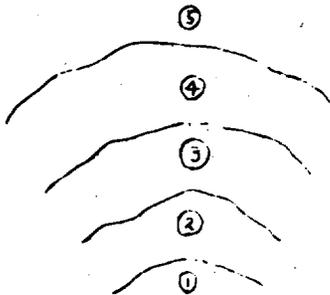
1) 牧 場 名

① 녹 화 지 : 화전지역을 가리킨다. (中文里 東北方의 녹화지岳 주변지대)

- ② 모라리 : 녹화지에서 西쪽 部近이다.
- ③ 옹탕밭 : 녹화지에서 東쪽 部近이다.
- ④ 너른넙동 : 「중문면 하원리」 부근이다.
- ⑤ 모록밭 : 「안덕면 상천리」 부근이다.

2) 山林地域

(그림 1)



- ① 하жат
- ② 목장
- ③ 중жат
- ④ 상жат
- ⑤ 화전지역 : 이 地域에서 部落을 形成하는데, 이것을 「火田」이라 한다.

이처럼 「山林地域」을 5等分하여 한 해씩 거르면서 農事를 짓는다. 그러나, 牛馬가 「하жат」으로 넘어오면 農事를 짓지 못한다.

3) 語 彙

태우리 : 牛馬를 돌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통 고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30마리를 보아주면 1마리를 준다.

셀, 옷 : 겨울에 必要한 衣服으로써 무명으로 누벼진 옷이다.

발 테 : 눈위를 걸을 때 다리를 보호하는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각반처럼 다리에 끼우는 것이다.

초 신 : 짚으로 엮어 만든 신(韃)으로서 보통 누구나 신고 다녔다.

태와리 : 신의 한 種類인데 새끼로 엮어 만든다. 「초신」이 여름용이라면, 이것은 겨울용이다.

밥동그랑 : 一種의 도시락 구실을 하는 것이다. 대나무를 바구니 形態로 엮어 만든다. 주로 점심을 갖고 다니는데, 밥·침떡·모멸법떡이

주로 담겨진다.

약도리 : 밭동그랗을 「험벅(험겍)」에 싸서, 그것을 넣고 다니는 것으로 써 「진」이라는 풀을 말려서 만든다.

감 태 : 모자를 통틀어서 이렇게 불리며 그 재료에 따라서 「개가죽감태」「노리가죽감태」「취달가죽감태」 등으로 불려진다. 이 감태들은 귀까지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두름띠 : 옷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허리를 묶는 허리띠의 一種이다.

독 다림 : 「갈중이(감을 물들인 노동복)」를 입은 후에 다리를 묶는 끈의 一種이다.

무저웃 : 주로 「태우리」가 입는 上衣이다. 아주 두터운 옷이므로 나뭇가지나 가시에 걸려도 찢어지지 않는다.

별림이 : 쇠가죽으로 만든 모자의 일종으로써 「감태」가 겨울용이라면, 이것은 여름용이다.

알감지 : 「밭출」의 方言으로서, 이것은 「태우리」가 등에 지고 다니면서 牛馬가 걸벽으로 떨어졌을 때 구해내는 도구이다.

그 정 : 「절벽」이라는 方言이다.

출 : 「풀」의 方言으로서 牛馬의 사료로 쓴다. 가을에 풀을 말린 것이다.

그러나 생풀(生草)도 「출」이라고 하지만 大部分 이것을 이르는 경우가 많다.

명 식 : 주로 가정에서 곡식을 말리는데 使用하지만, 山에서는 눈이 많이 와서 牛馬(牛馬)가 걸지 못할 때, 눈 위에 퍼서 걸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때는 2 개를 가지고 교대하며 使用한다.

불 짝 : 「서의(소리) 나무」로 만든 것이다. 태우리의 필수품중의 하나로 서 겨울철에 떨감을 구하지 못했을 때 사용이 된다.

장 : 주로 목장의 준말로써 濟州道の 18장 중에서 中文리는 8장에 속한다.

상손감 : 각 소장에서 우마의 처리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다.

이는 추천제로 뽑는다. 이 밑에는 「하손감」이 있고, 또 밑에는 「

목자 (노역을 담당하는 사람)가 있다.

장 통 : 주로 「물장」이라고 하며 「상손감」이 말을 검사하거나 「烙印」도 찍고, 「말총(말총)」도 찌르는 곳이다.

4) 烙印에 對하여

烙印의 種類에는 國馬에만 찍는 「山」字 烙印을 비롯하여 「生」「日」「斗」「井」「土」「由」字의 烙印이 있다. 찍는 날은 「申日」과 「寅日」이다. 場所는 적당한 곳을 택하지만 주로 「장통」에서 行해진다.

또한 이 烙印을 찍을 때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미녕(무명)」을 20자만 내면 된다. 그리고, 그 烙印의 方向을 주인이 定한다. 그 찍힌 烙印이나 形態를 보고서 자기의 牛馬를 찾아내기도 한다.

다음은 소의 귀가 찢린 형태를 보고서 識別하는 말(語)중의 代表的인 것이다.

“뿔너착귀 꿰어서라!” (“타는쪽 (왼쪽) 귀가 찢렸더라”)

“채질너귀 꿰어서라!” (채찍질 하는 쪽 (오른쪽) 귀가 찢렸더라”) 는 말이다.

Ⅱ 狩獵語彙

조장노리 : 「암노루」를 가리키는 말이다.

웅쟁이 : 「숫노루」이며 「조장노리」보다 곱으로 크고, 뿔갈이를 하는 불에 잡힌 「웅쟁이」는 약으로 쓰기도 한다.

코골래기 : 멧의 一種으로서, 이것은 초기에는 꿩(침명쿨)을 使用했으나, 그 後에는 철사를 使用하고 있다.

작대기 : 「쥐달」을 추격하여 포위한 다음에 목을 누르는 도구이다.

군조름 : 「쥐달」의 몸 일부분으로써 냄새가 나는 곳이다. 그래서 사냥이 끝난 後에는 곧 이것을 잘라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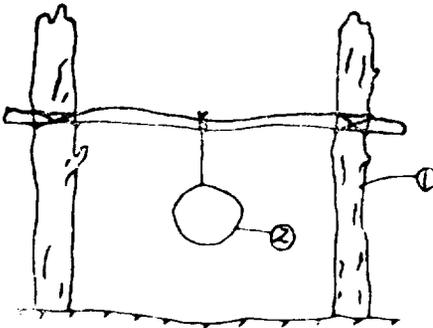
요리도리 : 멧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든 기구이다.

환방코 : 흔히 「쥐달」을 사냥하는데 사용되며, 형태는 노루사냥을 할 때 쓰는 멧과 비슷하지만 「요리도리」가 더 붙어 있다는 것이다. 이 「환

방코」는 그림과 같이 나무를 구부려서 「억새」에 묶어 놓는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놓은 덩에 걸리면 억새가 끊어지게 되며, 이때 나무는 곧바로 펴지게 된다. 또 다른 형태로는 장작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양쪽에 큰 돌을 놓고 그 위에 덩줄을 묶은 장작 한 개를 얹혀 놓는다. 그때 목에 걸리면 그대로 도망가다가 뒤따라오는 장작이 다른 물체에 걸리면 도망을 가지 못하고 걸려드는 것이다.

ㄱ) 노루사냥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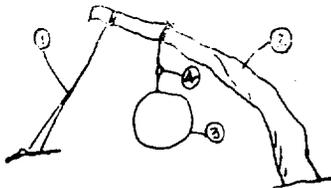
(그림 2)



- ① 나무
- ② 코골레기 (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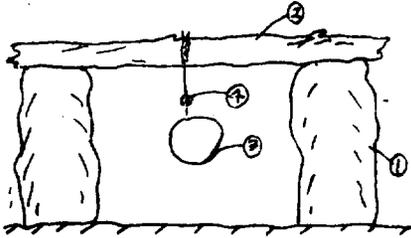
ㄴ) 쥐달사냥용

(그림 3)



- ① 억새 (草)
- ② 나무
- ③ 코골레기
- ④ 요리도리

(그림4)



- ① 自然石
- ② 나무
- ③ 요리도리
- ④ 코골때기

Ⅱ 漁業器具 및 漁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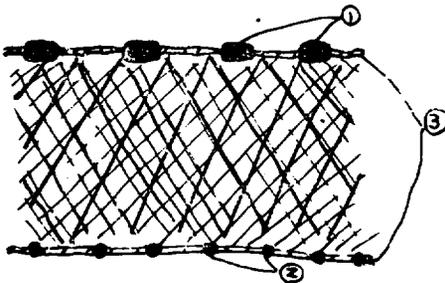
1) 語 彙

버릿줄 : 그물의 上下에서 連結시켜주는 줄이다.

버 국 : 그물이 설수 있도록 하는 기구로써 물위에 뜬다.

툇 쇠 : 연철로 만들어서 버국과는 상대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5)



- ① 버국
- ② 툇쇠
- ③ 버릿줄

가짓썩 | : 주낚에 쓰이는 기구로써 대나무로 만든다.
가짓채 |

가짓물 : 주낚가지는 물론 원줄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원 줄 : 주낚줄에서의 본줄이다. 낚시가 메달려 있으며, 이 원줄의 길이는 한상자당 300m 정도의 길이가 있다.

헛 줄 : 이것은 물위에 버국을 띄워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아 리 : 원줄에서 낚시 부분의 첫마디.

목아리 : 원줄에서 낚시 부분의 둘째 마디이고, 낚시와 연결되어 있다.

낚 시 : 보통 낚시와는 틀리다. 끝 부분이 안쪽으로 꾸부러져 있는데, 고기가 걸리면 빠지지 않도록 한다.

버 국 : 둥근 원형으로써, 유리와 기타 물에 뜰 수 있도록 한다.

깃 발 : 버국에 매달려 있으며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한다.

※ 이 주낚의 「원줄」에는 2m마다 낚시줄이 매달려 있으며 300m 정도의 길이가 한 상판속에 들어간다. 또 「주낚종류」에는 동주낚·복바리주낚·갈치주낚·생선주낚·복쟁이 주낚이 있는데, 「갈치주낚」은 물중간에 뜰 수 있도록 헛줄로 조정하며, 30분마다 들어올려야 한다.

2) 漁名 및 海藻類名

※ 오투미	조기	붕장어
돔	우럭	자리
고맹이	갯돔	가문돔
은어	숭어	불락
복바리	가달이	십이가새
새우	백여기	재주기
늪개	덤부리	보들빼기
패감시	조우럭	용얼우래기
매역치	소치	다금바리
미살리	갈치	멜
모도리		
※ 친초	우미	매역
※ 생복	베망	미 (해삼)
우렁보말	먹보말	수두리
ㄱ매기	마타살이	문다두리

바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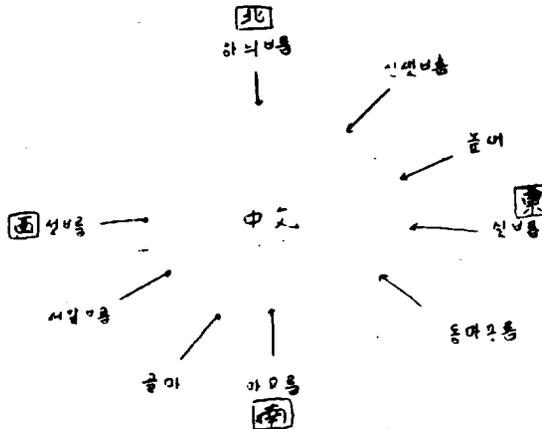
굳벗

개드래기

구제기

오본제기

Ⅳ 風 名



※ 이 風名에는 方向에는 關係없이 불어오는 「돌풍」이 있으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뒯쟁이 주재」등이 있다.

또한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선북풍」은 겨울에만 부는 것이며 「눈새」가 지나가면 꼭 비가 온다는 것이다.

Ⅴ 潮 水 名

陰 一曰 일곱물

陰 二曰 여덟물

〃 三曰 아홉물

〃 四曰 열물

〃 五曰 열한물

〃 六曰 막물

〃 七曰 아끈저기

〃 八曰 한저기

〃 九曰 부날

〃 十曰 혼물

〃 十一曰 두물

〃 十二曰 서물

〃十三日	너물	〃十四日	다섯물
〃十五日	여섯물	〃十六日	일곱물
〃十七日	여덟물	〃十八日	아홉물
〃十九日	열물	〃二十〇日	열한물
〃二十一日	막물	〃二十二日	아끈지기
〃二十三日	한지기	〃二十四日	부날
〃二十五日	흔물	〃二十六日	두물
〃二十七日	서물	〃二十八日	너물
〃二十九日	다섯물	〃三十〇日	여섯물

※ 이 中文里에서 초하루는 언제나 일곱물로 시작이 된다. 또 29일이 되면 즉 짧은 달이면 5물과 6물은 하나로 합쳐져서 그다음인 초하루는 역시 7물이 되는 것이다. 또 「부날」이라는 것도 「한지기」 다음에 있다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Ⅵ 身 體 名

목구레 : 남자인 경우에 성대를 이르는 말이다.

팔꿈치 : 팔굽

엄지 : 엄지 손가락

안지기 : 검지 손가락

상손가락 : 장지 손가락

노베기 : 약지 손가락

옆갈리 : 옆구리

앞성문이 : 무릎에서 발사이의 앞 부분의 뼈를 가리킴

발가락 트멍 : 발가락 틈(사이)

안귀마리 : 발의 뒷 部分의 뼈

주술 : 보통 근육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다리 부분의 근육이다.

종애 : 허벅다리.

조금패기 : 무릎의 반대편의 움푹 들어간 곳.

잠지팍 : 팔반뼈 밑부분의 넓은 부분이다.

절벤꽁 : 「절벤」은 뼈 종류이고, 「꽁」은 뼈의 방언이다. 이말은 무릎을 가리키는데 무릎을 꾸부렸을 때 「절벤며」같다고 하는데서 붙여진 이름.

두던이 : 사타구니.

오무순이 : 명치부근. 가슴이 오목한 부근이다.

득지 : 어깨

모감지 : 이것을 “아가지”라고도 하며, 「목」의 方言이다.

귀뚱배기 : 이것을 “양지”라고도 하며, 「뺨」의 方言이다.

이맹이 : 「이마」의 方言이다.

Ⅶ 오 락 명

1) 노 인 층

클작시 : 재료는 보리줄기로서, 「새작시」 머리처럼 만들어 머리에 단다. 주로 골목이나 활(날가리 쌓아 올린 것) 구석에서 노는데, 그 이유는 어른들이 육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탓이기도 하다.

공기 : 재료는 돌맹이 5개로서 손으로 하는 놀이이며,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방칠락 : 양편으로 나뉘서 사람수에 관계없이 하는데, 둥그런 원을 반으로 나뉘서 돌맹이를 밀어 넣는다.

폰 : 장기관 비슷한 형태를 그려놓고 돌맹이를 갖고 한다.

연 : 주로 겨울에 즐기는 놀이로서 정월 보름이 절정에 도달한다.

그 종류에는 「얼레연」 「가오리연」 「개올래기연」이 있다.

2) 어린이층

공기

공칠락

아방어명

꼬마야! (출넘기)

산퇴끼

고무줄

곱을락

니배기

다섯개

방칠락

※1 편작

※2 쓰리편

※3 비행기편

※4 드래기편

빠짱치기

다마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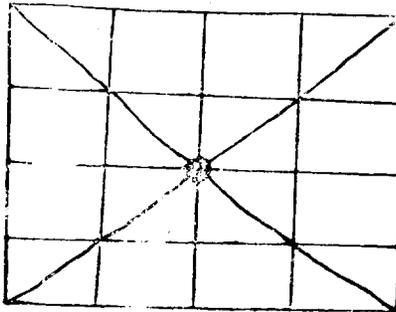
가위생

토래기

※ 위처럼 노인층과 어린이층으로 분류해 보면, 어린이층이 종류가 다양하다. 옛날의 바쁜 생활 및 환경이 넉넉치 못했다는 노인층에서는 겨우 몇가지의 오락 종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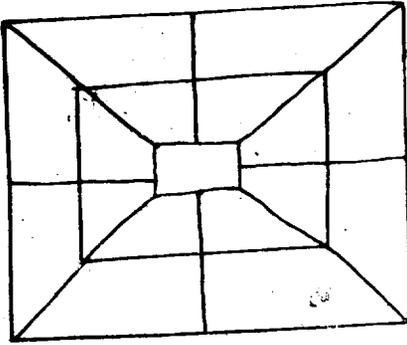
그러나 오락명 중에서 표(※1, 2, 3, 4,)는 그림 形態와 게임 內容을 간단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 「편작」은 縱橫으로 각각 3개씩 짝지워 졌으면 상대방의 말을 한 개씩 따올 수 있다. 그래서 3개 이하로 되면 지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은 종이나, 나무판, 또는 땅에다 그리고 말은 돌맹이나 사기조각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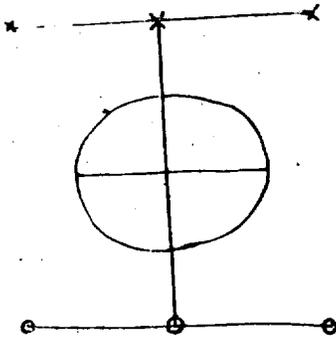
<※ 표2>



이 <쓰리퀵>은 말이 모두 24개로서 中央에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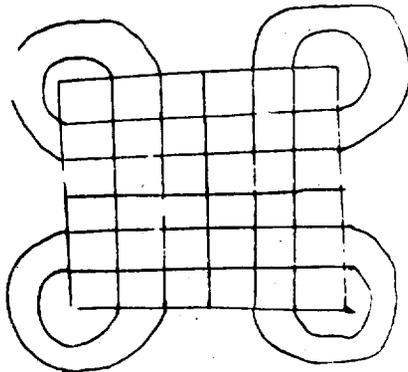
게임 요령은 자기편이든 상대방의 말이든, 관계없이 한 개를 건너뛰면서 막는다.

<※ 표3>



이「비행기편」은 <헬리콥터>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요령은 「O표」와 「X표」에 각각 3개씩 놓고 한 번에 한칸씩 움직일 수 있으며 상대방의 말이 꼼짝 못하게 하여야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다른 「편」과 다른 점은 상대방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 표4>



이 「도래기편」은 합계 38개의 말이 있어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 요령은 길을 따라서 무한정 움직인다. 그러다가 상대방 말과 만나면 말을 따오고 그 자리는 자기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

면서 상대편 말이 한 개도 남지 않으면 이기는 것이다.

Ⅷ 昆 蟲 名

잠자리 : 「조팝주얼 · 왕밥주얼 · 고치밥주얼…」 등이 있다.

매미 : 「죽재얼 · 왕재얼 · 구재기재얼」

개미 : 「노랑개엄지 · 물개엄지 · 장수개엄지…」 등이 있다.

거미 : 「심방거미 · 서당거미」

파리 : 「거멍פור리 · 쉬פור리 · 개פור리 · 시פור리」

뱀 : 「물뱀이 · 구렁이 · 셋배엄」

도마뱀 : 「독다귀 · 뚫줄뱀」

메뚜기 : 「심방말축」

지네 : 「황주냉이 · 암추냉이」

사마귀 : 「곡주기」

Ⅷ 人 事 語 彙

1) 길에서

어디 감수과?

모다 안잔 놀암쑤과?

어디테 감서 마쑤?

오랜만에 바점수다?

어떻 편안허게 살암수과?

2) 집에서

무싱거 햄수과? (또는 「놀래 와수다」)

이레 읍쑤 · 올라읍쑤

밤먹읍니가? …등으로써 흔히 쓰이는 언삿말 들이다.

信 仰

指導教授	玄	容	駿
班 員	左	東	烈 (國三)
	崔	鶴	主 (國一)
	申	德	一 (國一)

目 次

1. 宗 教 概 觀
2. 部 落 信 仰
3. 家 庭 信 仰
4. 公 認 宗 教
5. 巫 俗

1. 宗 教 概 觀

1) 概 觀

中文里에 있어서 公認된 宗教로서는 예수교, 천주교, 佛敎가 있고, 따라서 敎會 1개, 聖堂 1개, 寺刹 2개가 있다.

그 외에는 巫俗의 堂이 6개나 있다. 公認 宗教가 여러 개 있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宗教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을에서 특히 지적할 만한 점은 新興宗教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마을의 경우를 보면 천주교나 예수교, 또는 불교와 類似한 新興宗教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中文里 內에서는 그런 宗教는 전혀 없었다.

中文里를 中心으로 調査한 信仰은 部落信仰과 家庭信仰 巫式祭 등이다.

2. 部 落 信 仰

이는 部落과 部落民의 安寧, 農事의 豐登을 祈願하는 祭로서 이에는 儒式部落祭와 巫式部落祭의 두 가지가 있다.

中文里의 경우 儒式部落祭에 屬하는 것으로는 酬祭, 祈雨祭, 別祭 등이 있고, 巫式部落祭에 屬하는 것으로서는 치성제를 들 수 있다.

1) 酬 祭

酬祭는 濟州島의 각 마을에서 行해지던 祭로서, 모든 마을에 포계동산이 있음을 본다.

現在 中文里의 경우는 酬祭가 行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行하지 않은 지가 30여년이 지나 그 당시의 祭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주민이 없었다.

그러나 그 마을의 古老들의 記憶에 의존하여 대충 정리해 본다.

祭儀管理: 祭日이 가까와 오면 마을 有志들이 모여서 豫算의 規模를 定하고 祭官을 選出한다. 모든 祭의 管理는 그 때 選出된 祭官들에 依한다.

祭日: 대개 6월 初旬頃에 丁字 붙은 날(初丁日)로 定하는데 祭는 子時에 시작 한다.

만약 不意의 事態로 祭를 지낼 수 없게 되면 연기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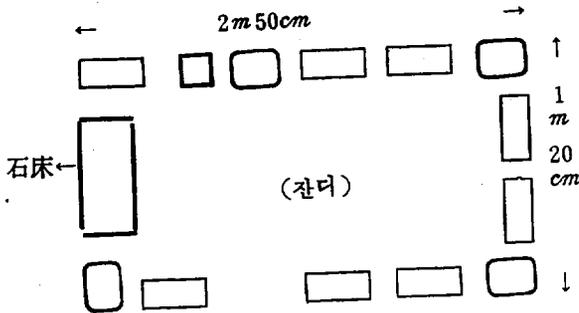
祭官: 祭를 爲해 選出되는 祭官은 14名으로, 이 때 選出된 祭官들은 祭를 지내기 일주일 前부터 포계동산에서 천막을 치고 合宿하게 된다. 合宿하는 동안은 飲酒를 禁한다.

祭物: 祭物로는 메, 돼지, 닭, 생선, 고사리, 정각채, 미나리, 옥수수 등의 이삭 등을 올리는데, 穀食類를 除外하고는 날 것으로 올리고, 肉類는 수컷만을 使用해야 한다. 술 대신에 감주를 쓴다.

飲福參加者: 主로 祭官과 마을 有志들이 參席하게 되는데, 이 때는 男子만이 參席하며 祭가 끝난 後에는 역시 祭官과 마을 有志에게만 出盤(祭物을 分配하는 일)한다.

準備: 祭官과 祭日이 定해지면 마을에서는 “화연제”라고 해서 各 집마다 쌀 한 되를 거둬 酬祭 經費를 마련한다.

祭壇: (中文里에는 祭壇의 痕跡이 없어 그 이웃 마을인 大浦里 포제동 산의 祭壇을 參考로 圖示한다)



2) 기 우 제

祭神 (지방): 龍神之位

祭壇: 天帝淵 밑의 「알수머리」란 곳에 임시 제단을 만들어 行한다.

祭日: 가뭄이 오래 계속되면 마을에서 의논하여 丁字 든 날(丁日) 子時에 시작한다.

祭儀管理: 里民의 추천을 거쳐 官에서 任命한 鄉長, 警民長, 尊位長이 주재하고, 鄉會에서 獻官을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관리·집행케 한다.

祭物: 모든 祭物은 「만지샘」의 물로 만들며 3일 굶진 胙지를 使用한다. 그 외에는 酬祭와 같다.

飲福: 마을의 노인들에게 出盤(祭物을 나누는 일)한다.

祭를 드릴 때 말 울음소리가 들리면 吉하고 소나 닭의 울음소리는 凶하다고 한다.

3) 別 祭

마을에 傳染病이 돌거나 또는 不意의 事故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星川

降에서 醮祭와 같은 形式으로 祭를 지낸다.

단지 醮祭와 다른 點은 祭物을 준비할 때 마을에서 일등집 (가장 권위 있는 집안) 寡婦가 맡게 되는데, 飲食을 만들 때에는 白紙로 입과 코를 가리고 했다 한다.

4) 치 성 제

정월에 지내는 祭로 온 마을 사람들이 편안케 해 주십사 하고 제를 드리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說話가 傳한다.

옛날 金氏 姓을 가진 선비가 살았는데, 서울 (한양)에 가서 몇 번씩 과거를 봐도 낙방만 계속했다. 마지막 과거에는 「身年九九 落榜三三」이란 글귀를 써 바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뒤 그가 죽어서 3일이 되는 날, 드디어 서울에서 참판벼슬이 내렸다. 教旨를 갖고 使臣이 내려와 본 즉 金氏가 죽은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할 수 없이 教旨를 관 위에 올리고 배례하자 관이 “명 명 명”하고 세 번 울었다. 그로부터 사람들이 김참판의 넋을 위로 하기 위해서 치성제를 드리기 시작 했는데, 현재는 行해지지 않는다.

3. 家 庭 信 仰

1) 조 왕 제

佛經에 의하면 조왕大神은 8만 4천이라고 한다.

조왕제는 월 3회 行해야 하는데 음력으로 6日, 12日, 13日이라고 한다.

이 祭를 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日 정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부엌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하며 고기류는 일체 금한다.

祭官은 승려가 되며, 祭物은 과일, 채소 (3가지일 경우는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가 되고 5가지일 경우는, 시금치, 무우가 더 포함된다) 시루떡, 메 등이다. 메는 술에 있는 채로 밥자를 쫓아 지낸다. 그 외에는 찬물을 그릇에 떠서 올린다.

이는 주로 집안의 百病消滅, 災殃解消, 運數大通 등을 비는 것이다.

4. 公 認 宗 教

1) 기 독 교

ㄱ) 명칭 : 대한 예수교장로회 중문교회

ㄴ) 沿革 : 1915년 전남 강진군 사람인 최 대연목사가 들어와 布教하기 시작 했으며, 그로부터 3년 후인 1918년에는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1956년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분리되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1965년, 10년만에 두 교회가 합동에배를 봄으로써 예수교장로회로 통합되었다.

ㄷ) 教會現況 : 1973년 신축된 현재의 교회는 404평 대지에 146평 건물로써 종자의 높이는 20여 m가 된다고 한다.

ㄹ) 代表者 : 문 태선 목사.

ㅁ) 教人現況 : 教人は 140여명으로 전부 중문리에 분포하고 있다. (중문면에는 거의 모든 마을에 교회가 있다)

2) 天 主 教

ㄱ) 명칭 : 서귀포 중앙천주교 중문교회

ㄴ) 沿革 : 1955년 「토마스·라」 신부에 의한 파견전도사의 布教로 비롯 되었으며 당시 時代의 背景으로 教勢가 급격히 증가하여 300여명의 신도를 가진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90명의 신도가 있다.

ㄷ) 教會現況 : 일제시대의 神社터에 미군과의 절충으로 세워진 현위치의 성당은 대지 1,240평, 건물 33평, 사택 10평으로 되어 있다.

ㄹ) 教人現況 : 현재 교적상에는 90명의 신도가 있으며 이들은 교회발전을 위해 양돈사업(돼지 217두)과 학생회 사업으로 감골원(감골나무 200본)을 경영하고 있다.

3) 佛 教

ㄱ) 慧 信 寺

宗派：元曉宗

寺刹：建物 2 동, 건평 661평

주지스님：池元植 38才

信徒：100여명 (분포지역：색달리)

住所：남제주군 중문면 색달리 2,964

ㄴ) 光 明 寺

宗派：太古宗

沿革：1965년 現住所로 移轉

信徒：200여명 (분포지역：대포리)

建物：30여평

建坪：200여평

주지스님：이상규 46세

ㄷ) 天帝寺…曹溪宗의 寺刹로서 光明寺 옆에 있다.

5. 巫 俗

1) 드림지께

由來：처음 林氏宅에서 당을 설치하여 모시기 시작했다. 林氏는 古阜 李氏와 비슷한 年代에 中文里에 들어왔는데, 약 400년쯤 될 것이다.

位置·形態：中文里 섯동에 서쪽 백긋내 東邊에 있는데, 20坪 정도의 굴이다. 굴 속은 비교적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고, 동쪽 벽에 네모지게 자그마한 空間을 만들어 그 속에 神像을 들여놓고 잠가 놓았다. 이 神像은 천으로 만든 인형에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라 하며 당굿을 할 때는 이 神像을 꺼내어 祭壇에 모셔서 한다고 한다. 祭壇은 동쪽 벽 앞에 반반하게 세멘

트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약 5년전 상단골에서 비용을 내어놓고 메인
심방인 高玉順氏가 만들었다 한다.

祭日 : 1月 15日. 8月 15日

단골 : 처음은 林氏宅이 상단골이었는데, 지금은 李氏宅도 상단골이 되
어 있다.

본풀이 : 불목당의 본풀이와 같으므로 그것을 참조할 것.

2) 불 목 당

位置·形態 : 中文里 동쪽 제2횡단도로 동쪽 가에 있다. 樹木이 울창하게 우
거진 언덕 가운데 바위 앞에 돌로 祭壇이 만들어져 있고 나무엔 물색, 지
전 등이 걸어져 있다.

祭日 : 6月 7, 17, 27日. 11月 7, 17, 27日

본풀이 : 할로영산 소못넷밭 동어께로 을축 삼월 열사흘날 즈시에 아홉
생제가 솟아 났수다. 기영허연 삼월 대보름 날은 썰거리낭밧드로 위가르
고 가지갈르자 허연 산설 짚고 물설 잡안, 큰 성님은 난미 수산으로 가지
갈르고, 셋 성님은 동서홍리로 가지 갈르고, 셋채 호근마르로 가지 갈르
고, 넷채 증문리 하로백관이고, 다섯채 색달리로 가지 갈르고, 8셋채 열
리고 가지 갈르고, 일곱채 창고내로 가지 갈르고, 9셋채 감산리로 가지
갈르고, 아홉채 날외로 가지 갈라 갔수다.

아홉성제 중에 넷체인 이 본향은 아주 우김세고 투김세어서 저 천제연물
알로 간 거두잡으난 사농코로 오고 개공달이 물로 목욕하데 오고 부정기
가 나서 서정기가 나십주께, 기영허연 건곤에 떠뎡전 어디로 좌정을 하리
오 홀디 그 임침 임스령이 산앞 산뿔 목쉬질을 잘 호난 불미질을 호더라
홀네다.

정씨 판관이 글로절로 돌아보단 도람지께에 굴이 이션마썸. 이제 이
임침 하르방마라 이 굴을 부수와서 올렐 치렌마썸. 석수쟁일 드라단 올렐
친집주. 기영허연 쟈단을 무은 겁주. 이제 가지 갈라시든 본향만 선듯 못
하록 아홉성제 본초를 호자허연 아홉아기 단마을칭이라고 아홉성제 불

새각씨 물색으로 옷 입것수게 (새각씨 아홉개틀) 도람지께에 하팔 찬 모셨수게. 모사놓고 하로백관 장궐 보내징 허난 진궁부인이 이서났젠 홉디다. 진궁부인안티 장궐 보내젠 허난 캐지 지어놓고 구실동이 접저고리에 대홍단 접치매 가막창신 은비네 늦가락지 문 흘려놓고 새각씨 옷허영 장궐(결혼)을 시켜서 마썸. 진궁부인이 유태증을 가지난 일천결 먹어봐도 밥에 밥내나꼭 물에 물내나난 하로백관이 “무스결 먹고저라 허니?” 허난 “신산만산 나용산에 가그네 들콤돌콤 연드래나 새콤새콤 정갈리나 산듯산듯 오미자나 타 먹구정 허우다.” 허연 간오단 보난 사농쟁이멸이 분육허연 먹드시니 사농쟁이마라 원 모두 먹어보난 낭에 낭내 나꼭 물에 물내나난 그 분육사시미나 혼점 먹드시민 시원허엄직 허연, 노리괴긴가푸덴 혼점 먹어 보난 산뜻이라, 놀궐내가 나거든마썸.

하로백관신디 오아서 노염을 허니 “너 우으로 어찌 종경내가 나느냐?” “신산만산 노용산에 갔다가 스실이 약하약하해서 사농쟁이멸이 분육을 먹드시니 산뜻하게 사시미 혼점 얻어먹엿수다.”

“부정하고 서정 허다 진궁으로 도느리라.” “이녀 고향으로 가랜 헌점주.” 진궁으로 도느리난 날이 차고 들이 차고 낡은 전 예궁녀가 솟아나난 느진득이 정하남마라 이젠 아방국에 가서 여쭈라고 허난 “소녀아이 전갈오랏수다. 진궁부인은 해산을 허엿수다.”

“뻗을 해산 허엿느냐?” “예궁네가 느렸수다.”

“어신 사름 체급부모 아니냐, 계민 진궁으로 돌아사라.” 진궁부인 낭군에 선신을 드런 혼설 두설 혼일꿈술 나는 헨 어멍 아방 놀리납주게. 어멍에도 대답하고 아방에도 것 대답하꼭 행실이 나쁘난 이젠 무쇄쟁이 불려단 무쇠철갑 차놓고 싱거물로 요왕황제국에 귀양정배를 떠우난 요왕황제국 무우나무 상가지에 걸어진, 청삽살이 흑갑살이가 쿵쿵 주꾸난 요왕황제국은 “큰똥애기 나가 보라.” “아무것도 잇수다.” “셋똥애기 나가보라.” “아무것도 웃수다.” “말жат똥애기 나가보라.” “무우나무 상가지에 무쇠철갑이 걸렸수다.” “큰똥 셋똥 내리우라.” 못노리와, “말жат똥애기 느리우라.” 슬랑하게 흥글치난 느려완, “큰똥 셋똥 개문하라.” 못올려, 말жат똥애기 열면보니 도

령님이 선, 남자로 뵈겉주. “큰꼴 셋꼴 방에 들라.” 아니 들어가, 말갯꼴 방에 들어 갑주께, 석돌 열흘 앉아봐도 밥상도 술도 쥐도 아니들꼭 내외 법도 으시난 이제 아바님안티 말갯꼴이 여쭈겉주.

“아바님은 어떻게난 도구 높은 사위손님을 허여놓고 석돌열흘 혼 방안에 앉아도 여즈남즈 구별을 모릅니까?”

용왕국이 “한간 대청에 불러라. 엮드려 버치라, 너는 여즈냐? 남자냐? 여즈 남즈 결혼을 혼디 시아법이 어시니 너는 여즈냐? 남즈냐? 뿔이 부족해서, 내꼴이 얼굴이 나쁘냐? 때식이 나쁘냐? 행실이 나쁘냐? 뿔이 소원이 되냐?” 하니 “이게 대국은 대국이라도 우리 소국만 못하우다. 우리 국에선 사위는 손님이라 동창제도 열려놓고 남창제도 열려놓고 낮도 일퇴 밤도 일퇴 쇠잡아 전물제 두일퇴 열일퇴 게와시 잔칫허영 먹입네다.”

“게므로 년덜 사위손 하나 대접을 못하냐”곤 만관으로 출런 맥이단 보난 가내가 우송송협주께.

뻥란이 일어난 처부모가 선봉대장을 맥여서 나갈 지경이라.

그뻥 진궁아가기가 화딱 나서명 요왕아기마라 살았사라하곤 처부모도 반부모니 처부모가 가서 뻥난중을 잡을 수가 없다고, 내 가서 잡아그네 신령을 하니 타서 우리국에 가 우리가 기술을 풀아먹고 살겐, 게서 내가 가쿠덴 허연 가서 서양 각국 들어가고 뻥난이 와자와자 하는걸 뻥난을 잡아놓고, 거기서 뻥난을 잡아시니 너네국에서 뭐슬 타고 갈 것이냐? 하늘을 혼착 가정 갈 것이냐? 땅을 혼착 가정 갈 것이냐? “폐물이랑 필요 엇수다.” “우리국에선 날적의 제석님에 칠성님에 태어나시난 세경시만국 버으리 천가지 부술 만가지 중에 열두부술 흥단중치 내여줍서” 하니 조청비 모양으로 오희 쉐 닷쟁흠네다. 오희 쉐 타 놓고 “아방국에 가민 뿔을 먹어서 샅네까?” “세경시만국 버으릴 타시니까니 나룩삼곡에 나분데 보리 조 모물 작곡에 벌거지 두미에기, 눈애랑 청걸리, 머리아피 귀아피 물비리 갱비리 간장염, 복막염, 우로 상열, 알로 하열, 급성폐렴, 소아마비, 신경통, 열두부술 생손아피, 뱃보섭에 살기, 왕냉이, 봉애기, 열두시만국에 이런 부술을 부림시민 먹으라고 쓰라고 혼다.”고 요왕황제국이 내여쭈겉주. 기영하니삼방

이분부사될 때 무슨 곡식이 상곡이우다 하민 그제 맞아지곡 상단골이 조끼
쿠다 하민 조끼곡 흡네다. 기영허연 천가지 만가지 부술 타놓고 요왕아기
드라네 다시 싱거물로 들어 온접주. 천지가 요동하게 들어오란, “나는 이
제 요왕황제국 말갓뜯아기안티 사위들고 뺨난지중을 재우고 천가지 부술
을 받아 왔읍네다.” 아방안티 하난,

“외뜯아기 역력하고 똑똑하다. 이런 부술을 받아 와서니 너의 신령을 알
아 쥐사주.” (아방이 기십이 죽은 접주.)

“우리 임신이라 혼 진 부베간법도 엇고 몸정성을 허여사 살로그나.” 허연
그뻘 막을마다 돌아 본접주. 돌아와서 불목당을 보니 옛날 검목당이 세개
가 춤 이만저만이 아니고 자왈도 짓고, 구 한질 때난 개고병이 방침도 좋
고, 그디 설덕도 있고 하난, “그만하민 인간처도 교묘하고 개고병이 방침도
좋고 임신 좌정홀 만하다. 여기서 낳는 날 생산을 말고 죽는 날 물고, 장
호적을 받아서 만민단골에 서천제를 받으라.” 아방국이서 이 뜯안티 신령
을 내어 주명, “날랑 8월15일 1월15일 조손에 역가산이나 받으키여.” 기영허
연 좌정홀 거우다.

용왕아긴 불목당에 간 밤자린 자젠 보난 어명은 포로 눅고 들인 홀디 누
렌 하난, 그 때에 진궁아기가 남즈옷을 벗고 밤자릴 자젠 하는걸 보니 마쁜
여저저든 마썸. 용궁아긴 “어츄블쌍 얼굴 좋고 깃발종고 남자가부덴 오란
보니 예즈로 고나, 우린 임신이 될로그나” 혼것에 예열에 박히난, 그 때문
에 이 본향에 걸리민 폐렴도 되곡, 간장염 북막염도 되곡, 여잔 알로 하열
이 나곡 흡네다. 이걸 플리젠 하민 맹두치매로 아끈츠세, 한츠세 감아그네
심방이 돌리명 감장돌양 이젠 또 그 한집신디 강 아끈츠세, 한츠세, 마친 가
슴이랑 이 본향에 걸린 죄목이라그네 본향에서 풀러줍서 허영, 연당알로
풀어맞자허영, 춤 칭 신칼 타봐그네 조부드리지민 풀어졌수맹 하곡, 아니지
민 아명허여도 본향에 정성허여사쿠맹 흡네다.

처음엔 못동산 (긱가름 못) 김씨 할망이 모사네 긱가름 못 동산에 당집
을 지어 모셨는데, 결혼행렬과 행상군이 마주치민 자꾸 싸움이 나가난 (물
알 물위를 다투어서) 본향에 부정기가 나고 서정기가 나서, 천지용궁에 불

삼박을 놓아 당집에 불이 난 불에 타부리난, 천제연 옆 정동이제로 모셔
갔는데, 개공달이 무공달이멀이 몸뚱아가난 부정호덴 허연 다시 드람지께
로 좌정했수다. 드람지께는 자주 불이 들고 청년들이 부수어가니 본향을
모신 하교를 심방집에 간직했다가 제를 지낼 때만 등에 경 가서 지베고
호단 다시 5년전에 당을 수리허연 당에 간 모셨수다. 본향 인형은 열겐디
하트백관 9개와 진궁부인 하나우다.

(상단골은 임침 이침인디 굿허래 가민 상단골은 동쪽에 앉고, 중단골은
서쪽에 앉입니다.)

(傳承者：高玉順·女巫·50세)

3) 여드랫당

祭日：6月 7, 17, 27日. 11月 7, 17, 27日 (불목당에 갈때 여기도 간
다.)

由來：호근마르 여드래라 해서 호근리서 온 사람들이 모시기 시작했는
데, 이것은 호근리 여드랫당에서 가지 갈라 온 것이다.

(傳承者：高玉順·女巫·50세)

4) 베릿네당 (싱거물당)

祭日：正月 15日. 8月 15日.

由來：알당오드래라해서 난미(蘭山里)서 온사람들이 멩깁니다.

치료굿을 호고, 상단골은 李침 하단골은 金침이우다.

5) 전신당 (색달본향) (비바리당)

祭日：

由來：거느릴 댜 베린베오름을 거주삼아 요왕을 생겐 어부, 해녀 상을
받젠 오란보난 그디 임제도 웃고, 가는 군함, 오는 군함 거두잡아도 먹
을 만호고 쌀 만호고, 어부해녀를 거두잡아도 먹을 만호난 이디 좌정했수
다.

본풀이 : 강남서 풀이 성전디 성은 엮언 얼굴이 갓고, 아신 막 고우성이 아시소줄 빌언 결혼호는디 결혼호는 날엔 그만 성모르게 아실 돌아가 부러십주께.

뛰어 남으로 할로영산에 완 곱안 사는디, 성은 천기를 지퍼보난 아신 뛰어와서 곱안 제주절도로 와시난 구름설 북름설에 신느려가난, 정동이피로간 곱안 천기를 집허보난 춤 조용도호고, 빼릿네오름도 거주잡고, 군함배도 넘어가고 어부, 해녀도 땡기민 무심히 땡기꼭 허난 글로 부술을 주난 이게 신령이로구나 허연, 개 고병이 방침도 좋고 허난 좌정허였젠 흠디다. 그디 오란 거주 잡으난 성이 신령이 좋으난 영실로 허연 느려네 그디 오란 곱아시난, 그딜 오란 다둘리난 그디 간 거두잡아시난 다시 다울리난 아시네 두갖은 어디사 가신디 간간무래허연 녹아져버리난, 그 성이 완 거두잡았수께. 경 호난 내외본향이우께. 시집을 못간 비바리 본향이우께.

천기를 지퍼보난 그만호민 일신이 좌정허엿직호난 그만호민 나도 신령이 좋구나 허연 회수를 거두잡안 좌정허였수다.

넘어가는 군함배도 그디 오민 배파산이 되꼭 어떤말이우까. 어부, 해녀도 전봇 잡앙 글로 강 잘 위하지 아니호민 천가지 부술을 주영 그 앞으로 강 배가 몇 척 엮어지꼭, 해녀가 멧게 죽꼭, 막 지랄허여 가난 글로 공철잡안 꿈에 선똥들여네 글로 위허여 가난 전신당 있는디 도량 일흠이 “정시” 나네 당을 모시난 전신당이영 호는 곁주.

거느릴때 : 알로 느려 요왕도로 발 번어 온 서리올라 도공소천 전신당 일퇴한집, 어부, 해녀 발 번어 온 전신당 일퇴한집이영 흠네다.

民 謠

指導教授	金	榮	敦
班 員	高	貞	姬 (國四)
	張	源	澤 (國三)
	朴	漢	泰 (國二)
	趙	元	錫 (國一)

民謠 傳承者

양희옥(中文里, 女: 57才) 이종석(中文里, 男: 14才)
현창현(中文里, 男: 11才) 이경학(中文里, 男: 9才)
정기호(中文里, 男: 80才)

차 례

- I 序
- II 童 謠
- III 흥 에 기
- IV 달 구 노 래

I 序

이번 中文 現地調査에서는 時間的으로 많은 制約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童謠에 重点을 두어 集約的으로 蒐集하였다. 그밖에 中文里外 다른곳에서는 다른 謠種에 對해서도 손을 대어 보았으나 그 量이 미약한대로 그중 「흥에기」·「달구노래」만을 실었다.

童謠를 蒐集하되 같은 內容이라 하더라도 世代別에 따른 謠의 變異를 알기 위해 모두 蒐集·整理해 보았다.

Ⅱ 童 謡

1. 불싸지라 불싸지라

불싸지라 불싸지라

〈中文, 양 회 옥〉

〈불한디〉(반딧불)을 잡을 때 부르는 노래다. 밤에 〈불한디〉를 잡으러 나갔다가 많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눈에 띠게서리 불을 켜달라는 願望이 나타나 있다.

2-1. 큰돔베 마정오라

큰칼로 베영먹게

족은돔베 마정오라

족은칼로 베영먹게

〈中文, 양 회 옥〉

2-2. 큰칼 나오라 족은칼 나오라

큰칼 나오라 족은칼 나오라

〈中文, 이 종 석〉

2-3. 큰칼 족은칼 마정오라

큰돔베 족은돔베 마정오라

웨청먹게

〈中文, 현 창 현〉

2-4. 큰칼 〇져오라

족은칼 〇져오라

웨청먹게

〈中文, 이 경 학〉

이상은 〈베염〉(뱀)을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도록 하는 노래다. 이러한 것들로 볼 때 簡單한 辭說일수록 傳承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말축아 말축아 춤추라

정의대정 굿구경가게

〈中文, 양 회 옥〉

3-2. 산데레 절하라

산데레 절하라

〈中文, 이 종 석〉

3-3. 앞데레 절하라

앞데레 절하라

사름데레 절하라

사름데레 절하라

<中文, 현 창 현>

이것은 <말축>(메뚜기)의 뒷다리를 모아 잡고 춤추길 바라며 부르는 노래다. 3-1은 말축이 춤추는 모양을 심방(巫堂)이 춤추는 모양과 對比시킨 것이다. 이런 比喩法은 出衆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것들을 볼 때 그 傳承類型이 다소 特異함을 알 수 있다.

4-1. 죽하라 밥하라

요거보라 요거보라

밥하얌저 죽하얌저

<中文, 양 희 옥>

4-2. 죽하라 밥하라

<中文, 이 경 학>

<꽃גי이>(여프리 : 「계」의 一種)를 잡아 양쪽 발들을 모두 잡고 있으면 거품을 내뿜는다. 그 거품을 죽 쓸때, 밥 지을 때 나는 거품에 比喩한 것이다.

5-1. 창문올라 곤애기 나왓저

지계문올라 곤애기 나왓저

<中文, 양 희 옥>

<집진 들뱅이>(달팽이)가 움추렸다가 기어가는 것을 고운 아기가 문지방을 기어나오는 것에 比喩한 것이다. 그런데 金榮敦教授 著「濟州島 匪諺研究(上)」(一濼閣, 1965. 12)에 收錄된 것을 보면 이 童謠는 “조개껍질 열리기 바라며”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는 濟州市 龍潭洞, 城山面 吾照里에서 蒐集된 것이 있다.

6-1. 왕주월 느려오라

죽주월 느려오라

세동범벅 개동범벅

향영주마

<中文, 양 희 옥>

6-2. 주월 내려오라
 왕주월 내려오라
 족주월 내려오라

<中文, 이 경 학>

높은 가지에 앉아 있는 <주월>(등에의 한가지)을 잡으려는 것이다.
 손이 미치지 않으니 등에와 매미가 손이 닿는 곳까지만이라도 내려오길
 바라며 부르는 것이다.

7-1. 황벌레기 중벌레기

<中文, 양 회 옥>

7-2. 황벌레기 뒤라
 중벌레기 뒤라
 황벌레기 뒤엿저
 중벌레기 뒤엿저

<中文, 양 회 옥>

7-3. 중중 까까중
 어디가서 깎았나
 중국에서 깎았지
 얼마주고 깎았나
 삼십원주고 깎았다

<中文, 이 종 석>

머리를 아주 짧게 깎은(중<僧>의 머리 깎이) 아이를 놀리는 소리다. 이
 것은 다른 노래에 비해 傳承樣態가 多樣的 느낌을 준다.

8-1. 우리앞담 웨멀어비었나
 (우리뒷담 웨멀어비었나)
 우리앞담 다우라
 (우리뒷담 다우라)

<中文, 양 회 옥>

8-2. 앞담 멀어졌저
 앞담 멀어졌저

<中文, 현 창 현>

8-3. 감저 파먹당
 앞담 멀어부런

<中文, 이 경 학>

이 빠진 아이를 놀리는 노래다. 윗 앞니는 「앞담」, 아래 앞니는 「뒗담」, 어금니는 「열담」이다. 이것은 三多의 濟州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담과 關聯된다. 돌담 중 돌 한 덩어리만 없어져도 오목해진다. 좋은 比喩다. “다우라”고 하는 것은 짓니가 빠졌으니 새니가 빨리 돋으라는 것이다. 또 “감저 파먹당”은 고구마를 파서 먹다가 이가 빠진 것을 말한다.

※ 묵은니랑 돌아가고 새니랑 돌아옵서 <中文, 양 희 옥>

이것은 8—1의 “담 다우라”와 類似한 것이다. 흔들리는 이를 빼어서 지붕 위로 던지면서, 새로 돋을 이가 빨리 돌아나라는 것이다.

9—1. 울단 장쿨레빈

장훈사발 주뎡홀다

울지말라 울지말라

울단 장쿨레비

장훈사발 주라

장훈사발 주민

장국 행먹게

우런먹으난 드냐?

<中文, 양 희 옥>

9—2. 울단 장쿨레비

장훈사발 주라

<中文, 이 종 석>

9—3. 울단 장쿨레비.

울단 장쿨레비

막웃섬저

<中文, 현 창 현>

우는 아이를 놀리는 노래다. 우는 아이를 이런 노래로 놀리면 웃게 된다.

10—1. 주네야 주네야

불어라 불어라

주네 불라

사네 불라
주네 분다
사네 분다
천두롱만두롱 맥—

<中文, 양 회 육>

10-2. 주네 불라
사네 불라
주 맥—

<中文, 이 경 학>

보릿대로 피리를 만들면서 하는 노래다. 보리 피리를 만들어서 소리가 잘 나도록 여러번 되풀이한다. 항상, 울타리 안에 쌓여 있는 보리짚으로 보리피리를 만들어 부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娛樂처럼 되어 있다.

11. 서방머린 터박터박
나머린 문질문질
질곱딱하게 출리난
씨집보내사귀

<中文, 양 회 육>

<춤>로 모자를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저고리를 입힌 후에 이러한 노래를 한다. 이렇게 차린 사람을 「쿨(새)자씨」라 한다. 서방님 머리는 터박터박해 보이나, 내 머리는 모자를 썼으니 <문질문질>하게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12. 나춤 넘어가게 뛰라
나춤보단 멀리 뛰어주라
경허여사 이긴다

<中文·未詳>

높은 곳에서 <춤>(침)을 뺀 후, 자기가 뺀 침보다 멀리 뛰려는 것이다. 침이 떨어진 곳보다 멀리 뛰어야 어떠한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一種의 競爭心과 成就欲을 길러주는 것이다.

13. 시리떡 나오라

시리떡 나오라 (여러번 반복)

아이고

시리떡 나왔저

떡비라 떡비라

떡계

<中文, 양 희 옥>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떡을 만들며 부르는 노래다. 젖은 모래를 둥근 통(시루 모양의 통)에 담아 뒤집어 두드린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통을 때면 시루떡 모양이 되어 나온다. 아직도 소꿉장난할 때에 이 비슷한 노래들이 불려지고 있다.

14. 얼레기 나오라

챙빔 나오라

얼레기 차라

챙빔 차라

아이고 챙빔 차전 나왔저

이번은 얼레기 차전 나왔저

<中文, 양 희 옥>

<실거리 가시낭> 혹은 <가시낭> (아카시아) 잎을 많이 따서 손바닥 사이에 넣고 마구 흔들어대며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잎들이 <쿵등쿵여진다.> (차곡차곡 포개어 진다.) 손을 펴보아서 그 포개어진 정도가 짝 포개진 것은 「챙빔」(참빔) 엉성하게 포개진 것은 「얼레기」(어레빔)라 한다. 이러한 노래는 주로 女子들이 많이 불렀다. 그것은 過去 女子들의 머리 빗이 많지 않아서 가지고 싶은 所望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런 노래는 現在 불려지는 顔度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15-1. 동계 동계

나구실 털어지라 (반복)

<中文, 양 희 옥>

15-2. 물할애비 털어지라

새할애비 털어지라 (반복)

<中文, 이 경 학>

목욕하고 나와서 몸에 붙은 물을 떨어내면서 부르는 노래다. “풀할애
비” (하르방 : 할아버지)란 몸에 붙은 물방울을 가리킨다.

16-1. 흘다리 인다리

개칭 대칭
어디 보선
구월 나월
장전 밧뒤
버드 나무
어리롱 다리롱
지동에 착

<中文, 양 회 옥>

16-2. 흘다리 인다리

개칭 개
신나 어저
보문개
어어 장장
고노 고노
어리롱 다리롱
돌꿈 세꿈

<中文, 김 씨>

16-3. 흘다리 인다리

개칭 개
신녀뇨
봄 개
어어 장장
고노 고노
도라 돌깜
세꿈

<中文, 현 창 현>

16-4. 혼다리 인다리

개칭 개
 주냐 오나 보문 개
 보오 장장
 고누 고누
 둘라 둘담밭되
 세꿈

<中文, 이 종 서>

이것은 원님놀이(혹은 임금놀이)할 때 불러진다. 여러 사람이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차례로 짚어가며 논다. 이렇게 하면서 두 다리가 먼저 해당되는 順序대로 順位를 定한다. 첫째는 원님(임금), 둘째는 도둑, 셋째는 말(馬), 넷째는 개, 다섯째는 닭, 여섯째는 식모의 順位다. 順位가 定해지고 나면 원님이 모두 잠을 자게 한 후 코를 전부 잡아 본다. 자다가 닭이 울면 식모가 밤 지으러 나간다. 식모가 쌀을 보니 없다. 그러면 식모는 “도둑덜 들었저”하고 외친다. 임금이 전부 깨워서 말을 타고, 개를 데려서 도둑을 잡으러 가는 것이다. 이때 원님은 손에 旗 혹은 형질 조각을 들 때도 있다. 이 놀이는 아무런 道具 없이, 여러 사람만 있으면 재미있게 놀 수 있다.

17. 하르방 하르방

문올아 줌서
 도둑놈 왓저
 도둑놈 왓다
 하르버지 문올아 줌서
 도둑놈이 왓나
 문올아 주저

<中文, 김 씨>

<의(Ⅲ)하르방>이라는 노래다. 이에 놀이가 따르는데 다음과 같다. 문올 열여 주면 도둑이 들어가서 잘 익은 의(참외)부터 먼저 따 먹는다. 그러면 <의하르방>아 화를 내며, “에이, 이놈덜 도둑놈덜”하고 <다음

리는)(<쫓는) 소리를 한다. 이에 도둑들은 모두 도망가고 <외하르방>이 도둑을 잡으러 간다. 먼저 붙잡힌 도둑이 <외하르방>(<술때>)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18. 주막집 강알에 강보라

주막집 강알에 어수다

마짓강알에 강보라

마짓강알에도 어수다

응지강알에 강보라

응지강알에 강보란 시우다.

<中文, 양 회 옥>

술래와의 서로 間에 約束한 물건을 숨겨 놓고, 그 물건을 찾아 오는 놀이에 따르는 노래다.

19-1. 비야비야 오지말라

천도롱밭되 물롸랏저

영장밭되 물롸랏저

<中文, 양 회 옥>

19-2. 비야비야 오지말라

장몽밭되 물롸랏저

<中文, 현 창 현>

한창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면 방해되므로, 비가 그쳤으면 하는 생각에서다. 계속해서 놀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20. 멧갯낭순은 먹으른 멘질멘질(멧글멧글)

고사리순은 먹으른 ㄹ실ㄹ실

질린낭순은 먹으른 질락질락

<中文, 양 회 옥>

들(野)에 나갔다가 자라난지 얼마 되지 않은 軟한 나무(혹은 풀)의 筍을 따 먹을 때의 味覺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노래의 特長은 무엇보다도 表現에 있어서 알맞은 擬聲語를 使用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1-1. 꿩꿩

장서방

어찌어찌 살amna

풋버텨이 쫓어먹고 사누나
 가시낭 싸부난
 폭낭에 폭구실
 타력엿 사누나

<中文, 양 회 옥>

21-2. 평평

장서방
 어찌어찌 사요
 어용다용 돌암시니
 중기얇은 콩방울
 쫓어먹엿
 그리저리 살암주
 평평 파드득

<中文, 현 창 현>

평을 보고, 아니면 평이 우는 소리를 듣고 부르는 노래다. 평이 아무
 것이나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먹고 살아 갈 것이라는 뜻이다.

22. 제비생이도

강남을가른 돌아오는뉘
 님은혼변 가른
 못오는다.

<中文, 양 회 옥>

23. 강생이 강생이

곱딱혼 강생이야
 우리 강생인
 복실강생이

<中文, 양 회 옥>

<노래 22>는 날아가는 제비를 보고 노래하는 것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제비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님과를 견주어 본 것이다.

<노래 23>은 자기집 강아지가 복스러움을 자랑함이다.

24. 하르방이

그런성질이 셔나몬
 애기도 하르방 닳앙

그영 허염주
 하르방답안 그치록 성질남신가?
 야인 어미 예비 답진 안 헨
 뇌네 하르방 답안 경 험샤?
 에에 어멍 아방
 성질 물리지 말라
 어멍도 하는 일이 경 흠직 하고
 아방도 하는 일이 경 흠직 하고
 씨가 따나?
 그씨가 그씨주
 덩글남에 꿰초리 난다고
 그놈의 씨가 그놈의 씨주

<中文, 양 회 옥>

이것은 俗談에서 연유된 辭說이다. 父傳子傳이라는 意味와 거의 비슷하다. 어린 아이의 行動이나 性質이 그 父母나 할아버지와 닮은 것을 슬쩍 비꼬아 한 말이다.

25. 울지말라
 울지말라
 함박새기 벌러져 부러져
 땅도 벌러져 부러져
 국그릇 밥그릇
 문 벌러졌저
 아이구 이거
 울지말라

<中文, 양 회 옥>

넘어져서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것이다. 네(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 힘으로 <함박새기>(함지박)·땅·국그릇·밥그릇이 다 깨어졌으니, 울지 말라는 것이다. 곧 아이가 넘어지는 힘이 세다고 해서 달래는 것이다.

26-1. 호박 사례 와수다.

널 따리 동동
 식계 돌아 와수다

호박 하나 쪼서
널므라 돌아와수다
사흘 안네 들어수다

<中文, 양 회 육>

26-2. 수박타래 와수다

널므리 동동
오줌벅엄 흔저크라

<中文, 이 경 학>

호박을 지키는 술래와 호박을 훔치러 온 사람과의 술래잡기다. 호박 사
러 온 척하여 훔치고 도망하면 잡으러 다니는 것이다. 훔치러 와서 호박
(수박)이 없으면 오줌을 싸줄테니 그것을 거름으로 하여 빨리 크면 그때
와서 훔쳐 가겠다는 것이다.

27-1. 뭉게뭉게

이레왕 앉이라
경하민
밥그릇에 누벙이 굽영주마

<中文, 이 종 석>

27-2. 앉아난 방석에 앉이라

앉아난 방석에 앉이라

<中文, 현 창 현>

27-3. 뭉게뭉게

앉아난 방석에 앉이라
곤밥 누벙이 주마

<中文, 이 경 학>

이것은 <밥주리>(잠자리)를 잡을 때 부르는 노래다. 앉았던 자리에
또 다시 앉으면 <누벙이>(누룽지)를 주겠다는 것이다.

Ⅱ 흥 에 기

<흥에기>(꿀째는 노래)는 <출>(꿀)을 벨 때 일꾼들의 정신이 해이해
짐을 막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부른다. 흥미가 돋구어지면, 일은 더 빨

리 해치우게 된다.

<홍예기>는, 일꾼들은 팔을 베고, **땀**하는 사람은 혼자 한 군데 서거나, 이리저리 거닐면서 부르는게 **보통이다**.

이 출저 출 누어간다

어어이이야

어어

홍예기로구나

어어이어어

놀노로구남아 어어

이렇저렇 몽메기여

놀고나도 보고가자

이어어야

어어

홍예기로구나

어어

놀고나 기나는 곳

어어

홍소리를 놀고나 가게

이어어

홍아나 향는 소리

에에

히어어 산에로구나아

요장남덜 웃소리나 정정하게 말맞추시요

이어어 야

어어

홍예기로구나

어어

해에어어 산이나 넘어신가아

나를래낭은

대로한질 올테로나 가자—

이이어어야

어어

흥에기로구나아

이여도 흥

놀고나놀세에

칠팔월에에

녹음산소리가 무어인고 흥니

이이어야

어어

흥에기가 이아니나아

이어리로구나아

놀고나놀세

어렁수렁

노는도소리는 놀고나 보세

이이어야

어어

흥에기로구나아

여리나아 가네

<中文里·鄭基鎭·男·80才>

IV 달 구 노래

달구노래는 輓歌의 하나다.

<질토군>이 흙을 짊어져서 封墳에 부러 놓으면 처음에 <데>(잔더를 조그맣게 자른 것)로 봉분 모양을 만들면 여러 사람이 달구체를 들고 돌면서 흙을 두드려 다진다. 이때에 唱者는 옆에 서서 달구노래를 하고

주위에서 후렴을 後唱으로 받는다.

※ 후렴구는 各行마다 따른다.

후렴 { 어어 달구
 혹은, 어어 달구야 (힘이 늘어졌을 때 힘을 북돋우기 위해)

어어허어어어	달구로다
여보시요	청년네야
후의말씀을	들어보소
어제청춘	오늘백발
생각하면	가련할사
당대에	일당미색
못놀아도	자랑마소
칭해유수	흐르는물을
어느누가	금지할고
요순성탕	문호주공
후덕사의	관천하니
만고생년	일럿건만
초로ㄹ튼	우리인생
살머는	얼마나사나
노자노자	젊어노세
늙어보면	못노는걸
이방아가	누방아냐
강태공의	조작방아
가시오름	강당장침의
석쿨방아가	새글림성계
전성곳인	이내몸뉘난
늬쿨 다서쿨	새맛암서라
어허	훗소리 듣자

이 部分은 人生이 살아도 길지 못하며, 어제의 靑春도 내일이면 이같이
 흠에 묻힐 것이라는 것을 노래한 것. 이러한 內容은 輓歌에 흔히 나타난다.

질웃집외	도실낭 성경
쓴가든가	맞붙인셔도
일흔이	누흔나시랴
어허어	종군네야
이팔ㄴ른	달구채로
앞밭디	고망상고
어먼늬은	팔즈가 조아
제주목이나	보는고마는
만고생연	이네몸은
팔십당년	이네몸이
어언간	살았신가
어허어	웃소리듣자

이 部分도 前者와 거의 類似하다. 身世恨嘆과 歲月의 흐름이 너무 빠르
 다 했다.

요지경은	어더언고
중문네똥으로	내려온
만것것이	좁은동산
장송내고	큰소낭알
사공늬은	경신생이
팔귀채틀	웃웃와들랑
앞밭디	고망상공
이래저래	헛지들말고
어허어	웃소리듣자

이 部分은 葬事를 치르는 場所와 唱者를 列擧한 다음, 精誠들어 봉분을

쌍이라고 勸誘했다. 이렇게 精誠을 강조하는 內容은 精神이 해이해길 때 가끔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興味를 돋우어서 힘을 기울이게 하기도 한다.

가끔은 달구채를 잡은 사람들 스스로가 후렴을 힘있게 받아 재촉한다.

달구노래는 以上の 部分 이외에도 아주 많다. 이 報告에서는 紙面關係上 유감스럽게도 잇달아 불리우는 긴 노래를 생략한다. 그 概要는 即興的으로 周邊의 일거리를 唱하며, 판소리의 것을 援用하기도 한다. 이번 調査의 것에는 中國의 秦始皇이 不老草를 캐오라고 瀛洲까지 사람을 보낸 이야기, 楚漢戰鬪에서 옥통소 한 가락으로 敵을 물리친 이야기, 春香傳의 한 部分, 無影塔 사랑 이야기 등의 內容과, 唱者가 나이가 들었을 경우는 젊었을 때와 老齡일때의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唱하기도 한다.

以上の 달구노래를 해주신 분은 <홍에기>를 해주신 鄭基鎬氏인데, 이 분은 과거에 中文面 一帶는 물론 他面까지 초청받아 가며 唱을 했었다 한다. 有能한 傳承者였다.

說 話

指導教授	梁 重 海
班 員	金 勇 勳 (國四)
	張 寧 玉 (國四)
	金 鍾 錫 (國三)
	李 錫 範 (國一)

說話傳承者

정 군 석 (男 :)	金 明 玉 (男 : 75才)
李 達 彬 (男 : 83才)	金 性 燮 (男 : 52才)
咸 一 淳 (男 : 69才)	金 宗 根 (男 : 53才)
강 상 택 (男 : 62才)	吳 癸 亨 (男 : 77才)
鄭 基 鎭 (男 : 80才)	高 福 成 (男 : 39才)
이 호 진 (男 : 72才)	姜 太 益 (男 : 69才)
변 영 호 (男 : 46才)	高 基 兒 (男 : 74才)

目 次

- | | |
|-------------------|---------------------|
| 1. 中文面 說話의 概觀과 特色 | 나. 蔡 똑똑이 다. 死後參判 |
| 2. 設村에 關한 傳說 | 라. 무남발 關長 |
| 가. 中文里 設村에 關한 傳說 | 5. 孝子·烈女에 關한 傳說 |
| 나. 大浦里 設村에 關한 傳說 | 가. 孝子·孝子碑 나. 貧家의 孝婦 |
| 3. 地名에 關한 傳說 | 다. 烈女碑 |
| 가. 天帝淵 나. 河 源 | 6. 其 他 |
| 4. 人物에 關한 傳說 | 가. 梁氏墓 |
| 가. 金堂長과 文堂長 | 나. 金大監 터 |

1. 中文里 說話의 概觀과 特色

濟州大學 國語國文學科에서 例年行事로 實施해 온 現地學術調查를 實行함에 있어서 1975學年度의 調查對象地를 中文面으로 定했던 것은 中文面

이 어떤 學術的 資料가 많다던가 他地域보다 顯著히 다른 어떤 一面이 있을 것을 豫想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中文 一帶가 濟州道綜合開發計劃 속에서 集中的인 觀光施設 地域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地域으로 定한 것이다.

이 地域에 觀光施設이 이루어지기 始作하면 傳來의 모든 民俗資料等은 少시간에 자취를 감추지 않을 수 없는 趨勢에 놓일 것이기에 이러한 모든 資料가 다치기 前에 蒐集해 둔다는 것이 急先務이기 때문에 1975學年度의 調査對象地로 中文面 一帶를 定한 것이다.

따라서 說話 部門에 있어서는 他地域과 顯著히 다른 어떤 面을 發見할 수는 없었다.

그동안 國語國文學科에서는 安德面 倉川里를 비롯하여 牛島와 加波島 등 島嶼地域도 調査해본 바이지만, 이 中文面의 說話는 一回 調査對象地域이었던 倉川里와 接境하고 있는 地域이어서 倉川里의 그것과 매우 恰似함을 發見해 낼 수 있었다.

牛島の 說話에서는 倭와 關聯된 說話가 많았고, 加波島の 調査에서는 漂流船舶에 關한 이야기가 많았음에 反하여 이 中文 一帶의 傳說이나 說話에는 倭나 漂流船舶에 關한 것으로는 두드러진 것을 찾아낼 수 없었고 대체로 兩班社會의 生活感情의 表現인 슬기롭거나 勇氣있었던 人物에 關한 傳說, 孝子·烈女에 關한 傳說, 그 밖에 어느 地域에나 共通으로 있을 수 있는 地名에 關한 傳說과 設村에 關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倉川리에 있었던 「軍山」에 關한 傳說是 여기에서도 거의 一般化되고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採錄양기로 하였고, 倉川里 說話에 있는 「막사나」와 비슷한 힘이 센 사나이 「金堂長과 文堂長」도 여기에는 있었다.

「狍村」이란 地名의 由來는 倉川리에도 있었던 傳說인 것이요, 女人으로 變身한 여우가 말타고 가는 선비에게 태워다 달라고 하니 말안장 위에 같이 태워 집에까지 이르러 개를 시켜 退治했다는 이야기는 涯月面 一帶에 說話되는 「安營將」의 이야기와도 恰似함을 보았다.

說話에만 많은 紙面을 割當할 수 없어 比較的 收錄해 둘 價値가 있다고

보이는 것 만을 收錄하기로 하거니와 이들 說話에 關한 分析과 研究는 別途의 機會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다만 資料로서 提示할 따름이다.

2. 設村에 關한 傳說

가. 中文里 設村에 關한 傳說

中文里에 사람이 入住하여 마을을 이룬 時期는 16C末 즉, 壬亂後인 듯하다. 口傳에 의하면 現在 中文里 居住 鄭氏의 16代 祖上 鄭鳳이라는 분이 맨처음 이곳에 入住하였다 한다.

本來 鄭氏는 全羅道 羅州에서 벼슬아치로 있다가 壬亂를 만나, 避難을 떠났다가 이곳까지 漂流하여 와 定着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李朝 宣祖以前에는 現在의 里名인 「中文」은 물론 人跡조차 없었을 것이다.

鄭氏가 入住한 後에 다시 文氏가 들어와 이 마을에 살게 되어 이 마을의 兩主流를 이루었다. (文氏는 入道 15代)

現在의 里名인 「中文」은 옛날부터도 그렇게 불리워진 것이 아니라 鄭文洞, 中물, 僧水, 僧文等의 名稱을 거쳐 오늘의 中文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한다.

現 中文國民學校 東北쪽에 위치한 「군물」을 中心으로 해서 鄭氏와 文氏가 살았었다. 東北쪽으로는 「도래물(廻水)」 南쪽으로는 「큰개(大浦)」와 接하고 있는 이 마을은 처음에는 鄭氏와 文氏의 姓을따서 「鄭文洞」이라 불렀다 한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군물」을 發見하지 못하였던지라 천제연의 물을 利用하였다. 그러나 距離가 멀어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중(僧)이 와서 한 곳을 가리키며 이 곳을 파보면 이곳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므로 그 곳을 파보니 지금의 「군물」이 솟아 나왔다 한다. 이 「군물」은 중이 發見했다 해서 「중물」이라고 했고 마을의 이름도 「중물」로 불리었다. 이 「중물」은 다시 漢字로 表記되어 중「僧」字에 물「水」字, 「僧水」로 불리었다가 다시 中文으로 바뀌었다 한다.

現 里名인 「中文」은 지금으로 부터 300여년 前에 지어졌다고도 하며 大浦里와 廻水里 中間에 위치했다 해서 「中文」이라 했다고도 한다.

옛날, 지금의 河源里 法華寺 근처에 한 老夫婦가 살고 있었는데 물이 貴해 늘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老僧이 지나가다가 이들 집에 들러 물을 請했는데, 할머니는 물을 떠다 주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老僧은 할머니에게 한숨을 쉰 까닭을 물으니,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는 물이 아주 貴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먹을 물을 내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老僧은 내가 할머니께 그 貴한 물을 얻어 마셨으니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하며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한 곳을 가리키더니 「이곳을 파보면 물이 나올 것이요」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을 들은 老夫婦는 이상히 여겨 老僧의 말대로 그 곳을 파 보니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 나왔다.

이런 理由로 뒤에 이 동네를 중물동네라 불렀으며, 이것이 中文으로 바뀌었다 한다. (또 다른 說에 依하면 이 老夫婦는 지금의 「군물」동산에 살았다고도 함)

지금의 鄭氏 14代祖가 지금의 「군물」근방에 살고 있을 때였다. 當時만 해도 워낙 물이 貴해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中에 鄭氏와 親分이 있는 어떤 僧이 찾아와 鄭氏집에서 얼마간 寄居을하면서 보니 主人 鄭氏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僧이 그 理由를 물으니 바로 물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僧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땅을 보면서 水脈을 살펴보더니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이곳을 파보라는 것이었다. 그 곳을 파보니 물이 浬浬 쏟아졌다. 물이 너무나 많이 나오므로 늦그릇을 덮어 적당히 나오게 하였다. 이 물이 바로 지금의 「군물」이다. 이런 후에 이 동네를 중이 물을 뿜다해서 「중물동네」라 하다가 鄭氏 다음에 文氏가 入住해 음으로 그 姓氏를 더 붙여 「중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물을 가리켜준 중이 나간 곳은 지금의 「배린내」 동쪽에 있

는 바다인데 중이 이리로 나갔다 하여 僧去水라고 일컬어 진다.

〈說話傳承者 鄭군석(男:)〉

나. 大浦里를 設村한 元氏

大浦里에는 제일 먼저 元州元氏가 들어오고, 뒤이어 豊川任氏, 全州李氏, 林氏, 金海金氏가 들어와 設村되었다.

設村 당시에는 뱃머리에 한 30戶가량 살았었는데 마을을 「큰개물」이라고 하였다.

이 「큰개물」 原住民中 元州元氏는 入島始祖가 되어있다. 事實上 元氏는 大浦里의 主人이 되었다.

「큰개물」의 元氏는 그 다음에 지금의 大浦里의 中心地로 옮겨 살았는데 마을 골목 林氏, 任氏집을 거쳐서 교불교불 들어간 맨 안쪽에 살았으므로 〈안집〉이라 했다.

집이 웅장하였다. 집처마 네 귀에 풍경을 단 기와집에 살았으니, 牧使가 지나가다가 누구의 집이 이렇게 훌륭하냐 하며 들어서 보니 元氏의 집이었다.

八男龍을 낳았으니 그 집을 〈八龍堂〉이라 부르기도 했다. (八男龍은 子息이 八人이란데서 온 것이라 하니 四男四女 或은 八男四女의 兩說의 있는데 八男四女說이 많다.)

어느 날, 濟州牧使가 지나가다가 이 八龍堂에 關한 말을 듣고는 「龍」字가 너무 過하니 이 「龍」字를 「蛇」字로 바꾸라고 해서 이를 바꾸었더니, 半箇月 後에 집은 亡했다고 한다.

지금도 「베릿내」에 가면, 元氏의 墓가 있는데 한 산담안에 四墓가 있는데 元氏의 墓는 濟州島에서 제일 크다.

元州元氏는 大浦로 入島하고 大浦里의 元氏는 入島 始祖가 되었지만 月汀里의 某氏집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다가 男便 元氏가 돌아가니 子女를 데리고 月汀里로 돌아갔다. 이래서 元州元氏는 大浦里 밖으로 舊左面 月汀里에도 分布하게 되었는데, 마을을 元氏의 姓을 따서 「원정이」라고

불렀던 것이 뒤에 「월정리」가 되고, 마을 이름을 漢字로 적을 때 「月汀里」라 적게 된 것이다.

〈說話傳承者：金明玉·男：75才〉

3. 地名에 關한 傳說

가. 天帝淵

玉皇上帝가 하늘에서 내려와 沐浴을 하고 돌아가던 물이 天帝淵이라는 것이다. 瀑布가 아름다우며 絕壁의 奇巖이 눈길을 끄는 이 天帝淵 一帶는 可히 傳說속의 仙境이라 할만 하다.

瀑布가 三段으로 되어있는데, 下段에는 「행기소」(행기=食器)가 있으며 그 沼에는 행기가 떠다닌다는 說도 있다.

李朝 때 天帝淵 東쪽에는 中文院이라는 곳이 있어 濟州牧使가 巡行할 때에 이 곳에 들러 國馬를 点檢하면서 武士들을 모아 射術을 試驗하였다 고 한다.

天帝淵의 東쪽 「비자청」에서 西岸으로 줄을 매고 그줄 위에 人形을 태워 武士들에게 이를 쏘도록해서 射術을 試驗했다고 한다.

(說話傳承者：李達彬·男：83才)

나. 法華寺址가 있는 河源

法華寺址는 河源境에 있다. 지금 河源部落은 法華寺址에서는 훨씬 아래 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지금의 河源 마을의 設村 當時에는 安氏·姜氏가 먼저 살았다 하며, 뒤에 慶州金氏가 들어와 살면서 部落을 左右하였다.

지금도 「果樹마루」가 있는데, 李朝時代에는 이곳에 果園이 있어 과일과 陳皮를 上納하였다고 한다.

이 河源部落에는 그의 入島始祖로부터 20代가 되는 姜太益씨(69才)가 살고 있으며, 部落 사람들은 代代로 鄉校 出入을 많이 했고 글이 높은 洪幼學이 有名했다.

部落名「河源」에는 두 가지 說이 있다. 하나는 물의 根源이라는 데서 이름지워 졌다는 說이고, 하나는 上院·中院·下院에서 온 同音字「河源」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法華寺址에는 물이 좋다. 그래서 이곳을 오랜 옛날부터 물의 根源이 되는 샘터가 있다고 하여「河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 濟州島에 佛敎가 盛하였을 때, 漢拏山의 靈室과 中間의 法井과 지금 法華寺址에 各各 井이 있어 이를 上院·中院·下院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信徒들은 여름철이나 春秋까지는 靈室이나 法井인 上院이나 中院에 다닐 수 있었지만 겨울철에는 下院인 法華寺에 다닐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下院」이란 이름을 李朝時代에 내려오면서 排佛思想의 影響으로 忌避하게 되어 물의 根源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河源」으로 고쳤다고 한다.

또 이「下院」은 八所場(牧場)에서 내려온 곳이라 하여 그렇게 이름하여 오다가, 後人이 그 이름이 싫다고 해서「河源」으로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說話傳承者：金性燮·男：52才〉

4. 人物에 關한 傳說

가. 金堂長과 文堂長

金堂長과 文堂長은 힘이 장사였다. 金堂長은 妻男, 文堂長은 節夫, 두 사람은 남해간이었다. 하루는 이들 두 사람이 밭을 갈기 위해 밭으로 나갔는데, 그들의 밭은 각각 <갯>(城)을 사이로 위와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밭갈기에 싫증이 난 두 사람은 내기를 해서 진쪽이 이긴쪽의 밭을 갈아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 내기는 밭을 가는 황소를 갯울 사이로 던지고 받고 하다가 먼저 지친 쪽이 진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었다. 한참 두 장사는 소를 던지고 받고 하다가 그만 소는 죽어버렸다. 결국 두 장사는 내기를 포기하고 죽은 소를 앞에선 끌고 뒤에선 밀고 하면서 그들의

발을 다 갈았다 한다.

처남 金堂長은 죽은 소를 굶어지어다가 「쇠막」에 놔두었다. 영문을 물렸던 집안 식구들은 소에 먹이를 주려고 「쇠막」에 가봤더니 소는 죽어 있었다. 얼마나 소를 가혹하게 부렸기에 밤사이에 소가 죽었는가 모두들 이야기했다.

뒷날 文堂長은 妻家에 가보니 妻男 金堂長은 「늪끼」로 배를 꼬고 있었다. 金堂長은 姊夫에게 이 배를 좀 잡아당겨 달라고 했다. 文堂長은 기둥에 배끝을 묶고 썩 잡아당겼더니 기둥이 <문짝> 뽑아져 버렸다. 文氏는 後가 없다고 한다.

<說話傳承者：강상택：男·62才>

나. 蔡 똑똑이

蔡 龜錫은 翰林出身으로 大靜縣監을 지냈던 분이다. 爲人이 워낙 똑똑하고 明哲하였던지라 사람들은 그를 「蔡 똑똑이」라고 불렀다.

蔡 縣監이 進士教旨를 받고자 上京할 때의 일이다. 한 상점 앞을 지나 노라니 많은 풍뎡이(모자)가 진열되어 있었다. 풍뎡이나 하나 사볼까 해서 상점에 들어간 그는 그 수많은 풍뎡이를 하나하나 고르기 시작했다. 한참동안이나 풍뎡이를 뒤지던 그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던지 하나를 꺼내 들고는 값을 치르면서, 자기는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니 보관해 두면 내려올 때 찾아 가겠다고 하고는 길을 떠났다.

그가 간 後, 주인은 대체 어떤 풍뎡이를 골랐기에 그렇게 많은 풍뎡이를 일일이 뒤지면서 세심히 주의를 기울였나 하고 생각하여, 말기고 간 풍뎡이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 풍뎡이는 이 상점에 있는 다른 풍뎡이보다 훌륭한 것이었다. 이 정도의 물건이면 좀 더 값을 올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돈은 이미 받아버렸으니 어쩔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운 감이 있었던지 주인은 살짝 다른 풍뎡이로 바꿔치기하고 말았다. 무슨 재간에 수많은 같은 모양의 풍뎡이 중에 자기가 골라놓고 간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머칠 後 서울에서 볼 일을 끝마친 蔡縣監은 풍뎡이를 찾으려고 상점에 들렀다. 그리고는 상점주인에게 전번에 말기고 간 풍뎡이를 달라해서 받더니 풍뎡이 앞에 달린 털을 손으로 쓰다듬다가, 「이건 내것 아니요」하면서 돌려 버렸다. 주인은 속으론 놀라면서 태연히 또 다른 풍뎡이를 내주었으나 그는 또 털을 만지작거리다가 「이것도 아니요」하며 돌리는 것이 아닌가!

서너차래 다른 풍뎡이를 건네주어 봤으나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에 無顏을 당한 主人은 진짜 그의 풍뎡이를 아니 내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 풍뎡이를 받고 다시 손으로 털을 쓰다듬던 蔡縣監은 웃음을 띠더니 「바로 이것이 내것이요」하면서 털속에서 조그만 바늘을 꺼내었다. 그는 이미 그 풍뎡이 털속에 바늘을 꽂아놓아 標識을 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을 본 주인은 감탄하였다. 그래서 이름이나 알아볼까 하고 「대체 당신은 어디에 뉘시오?」하고 물었더니,

「난 濟州의 蔡龜錫이라 하오」하였다.

「그렇소? 헌데 당신 蔡龜錫이라 하지말고 蔡 똑똑이라 하시오」하고 主人이 말하니 그는 웃으며 상점을 나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主人은 「濟州에도 사람은 있구나」하며 거듭 감탄하였고, 이런 後에 사람들은 蔡縣監을 蔡 똑똑이라는 別名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說話傳承者：鄭基鎬：男・80才〉

다. 死後參判 金命猷

옛날 지금의 中文里 감사물이라는 곳에 金命猷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워낙 人品이 뛰어나고 文章에 能해 가히 學問에서 一家를 이루었던 그는 젊었을 때부터 立身해 보고자 과거를 보러 늘 서울을 제집처럼 드나 들었다.

그는 충분히 壯元을 할만큼의 才操를 가지고 있었으나 天運이 그에게 없었던지 계속 落榜의 苦杯를 마시고 말았다. 자기가 他人에게 써 준 詩

文으로는 그 사람은 及第하지만 이상스럽게 그에게 이런 幸運이 찾아오질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落心하지 않고 과거가 있을 때마다 上京하여 應試하였다. 허나 結果는 언제나 落榜이었다.

이러하기를 수차례, 어느덧 젊었던 그의 몸도 늙어 80고개를 바라보게 되었다. 과거를 치르면서 보낸 한平生이었다.

그러던 中, 다시 나라에서 과거가 있다고 하자 그는 80의 老軀를 이끌고 上京하여 試場에 들어가더니 一筆揮之, 몇자 적고는 다시 내려와 버렸다. 그 글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落榜은 三三이요 身齡은 九九로다」. 즉 「그 동안 落榜은 9번이나 했는데 몸은 어느덧 늙어 81세가 되었구나!」

이것을 본 朝廷의 試官들은 內心 놀랐다. 끈질긴 立身에의 執念과 學究에의 熱에 感動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試官들은 議論 끝에 그에게 參判의 教旨를 내려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教旨가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이미 이 世上 사람이 아니었다. 歸鄉後, 그는 老患으로 別世하여 이미 이때는 棺속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은 후에야 生前에 所望하던 벼슬을 하게 되었고, 教旨를 棺뚜껑위에 얹자 棺이 드르렁, 드르렁 울었다고 한다.

現在 中文里에서 濟州市쪽으로 빠지는 제2號 단로 入口 조금 위에 오랜 風雨와 거친 世波에도 아랑곳 없이 굳굳히 서있는 그의 碑가 있어 그의 끈질긴 執念을 보여 주고 있는 듯 하다.

〈說話傳承者·鄭基鎭(男: 80才)〉

라. 무남발 訓長

한 200年前에 中文 이 마을에 무남발 訓長이라 불리워지던 人傑이 살고 있었다. 姓은 古阜李氏, 그래서 무남발 李 座首로도 通하였다.

性格이 果敢하였을뿐 아니라 그 容貌와 眼光이 非凡하여 눈을 크게 뜨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눈을 반쯤 감고 다녔다 한다.

大靜員도 그를 左右하지 못하였다 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그와

相議해서 같이 解決하곤 하였다 한다.

中宗 己卯土禍 때 趙光祖先生 밑에 있다가 濟州에 定配 落鄉된 李世蕭의 後孫이며, 지금 中文里에 살고 있는 李京傑(39)의 七代祖라는 것이다.

貪官汚吏가 가끔 이 고을에 당도하였다가 무남발 訓長에게 호되게 당했다는 것이다.

그 어느때, 서울에서 胥吏驛卒들이 내려와서 濟州·旌義를 거쳐 大靜까지 왔다.

京師에서 멀리 떨어진 이 시골에 京胥吏가 내리면, 官弊 民弊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京胥吏가 내리면 그들의 路費 留宿費 모두를 責任져야 했다.

大靜縣廳에서는 무남발 訓長에게 사람을 보내어 京胥吏가 내린 것을 알렸으나 무남발 訓長은 默默히 말이 없었다.

무남발 訓長은 이때 座首였고 座首鄉廳에서 일을 보았었다. 호랑이 李座首로 有名했다.

드디어 京胥吏들이 座首鄉廳에 들어왔다.

李座首는 문을 닫고 房에 앉았다가 「뉘냐!」하며 門을 확 열었더니, 京胥吏들은 마루로 올라서다가 뒤로<도록>떨어졌다. 京胥吏들은 무남발 訓長 李座首의 威嚴에 놀려, 「과연 잘못했습니다」하고 용서를 빌었다. 「우리 大靜골은 貧寒한 고을이라 그대로 물러가라!」하니 그대로를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濟州에 남기 애석한 사람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무렵 濟州牧場 13場의 國馬가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 吏房들은 牧使에게 「濟州 13場의 糞(城)을 모두 헐고 놓아 먹여야 합니다」고 아뢰었더니 牧使도 承諾을 했다.

糞을 헐어 놓으니 牧場의 國馬들은 農土로 내려와 穀食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를 말릴 사람이 없다. 이 國馬의 배가 大靜골에 당도 하였다. 吏房이 大靜員에 들어가서 이 內容을 아뢰니 大靜員은 「秋牧期에 그럴 수가 없다. 李座首와 의논하지 않을 수 없다」해서 李座首와 의논하였더니 李座首가 반대하므로 國馬를 들여 놓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을 들은 牧使는 大靜員을 잡아들였다. 大靜員은 李座首가 역세계

반대하므로 員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牧使는 「李座首를 잡아들이라!」했다.

「大靜李座首 왔읍니다.」

「왜 大靜골에서만 國馬를 막느냐?」

「八九十老人들이 痛哭하고 있습니다. 老人들은 曰, 有馬之後에 有人이냐? 有人之後에 有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牧使가 들어보니 果然 無理한 말이 아니었다.

牧使는 吏房을 불러 곤장을 때리고 李座首에게는 내 在任期間만이라도 옆에 있어달라고 했으나 老父母를 두고 그럴 수 없다고 辭讓했다.

牧使의 귀에도 李座首의 眼光의 非凡함을 들었으나 李座首는 恒時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하루는 李座首에게 눈을 좀 떠 보라고 했다. 눈을 조금 떠 봤더니 두 눈에서는 光彩, 牧使는 두 손을 번쩍 들면서 「그만! 그만!」하고 말렸다고 한다.

李座首가 營門出入을 할 때 밤이 늦어 돌아올 때면 늘 단장한 女人이서 있다가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곤 했었다. 하루는 밤 늦게 돌아오려는데 어떤 女人이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말 위 자기가 앉은 뒤에 태워놓고는 도포곤으로 꼭 묶어 놓았다. 너무 묶는다고 하니 말이 날으는듯 빠르므로 잘 묶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李座首는 말에 채찍을 가했다. 말은 飛虎처럼 달렸다. 女人은 「내려줍서! 내려줍서!」하였으나 단숨에 中文으로 달려드니 등에 태운 女人은 막 등을 긁으면서 내려달라고 哀願하는 것이었지만, 드디어 李座首 집에 당도하였다. 집앞에 당도하자 정낭을 내리칠 겨를도 없이 말에 크게 채찍을 가하니, 말은 정낭을 뛰어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下人을 부르기 前에 검둥이·황둥이 개를 부르니, 개들은 달려들어 말 위에서 女人을 물어 내리치니 그것은 한 마리의 여우였다.

이것은 제주도 마지막의 단 하나 남은 여우였다.

(說話傳承者: 高福成·男: 39才)

5. 孝子·烈女에 關한 傳說

가. 孝子·孝子碑

孝 子

어느 고을에 兄弟가 살고 있었다.

父母가 돌아가시고 祭祀를 하는데 언제나 兄이 그 祭祀를 차리고, 동생은 제사날이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제사를 보러 형집을 찾아가곤 했다.

형은 제사를 위하여 제숙을 마련하는데, 언제나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두니 실수하는 일이 없었다.

바닷고기도 미리 마련하여 소금에 간하여 두었다가 그날이 오면 어김이 없었다.

동생은 제사 때마다 날고기로 제숙을 차릴 수가 없을까? 그것이 형에 대한 不滿이었다.

동생은 형에게 말하였다. 「來年부터는 제가 奉祀하겠읍니다.」

제사날은 돌아오는데도 싱싱한 바닷고기를 제숙으로 쓰기 위하여 미리 제숙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그런데 큰 일이 났다.

제사날은 닦쳤는데 바다가 거칠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나갔다. 泰山같은 波濤가 이는데 낚시를 던졌다. 그랬더니 神奇하게도 「미령뚝」 하나가 낚시에 물려 올라왔다. 동생은 얼마나 기뻐할까?

그날 제사는 「미령뚝」 하나를 올리고 제사를 치렀다.

(說話傳承者: 吳癸亨·男: 77才)

孝 子 碑

덕수리 東부락 한길 옆에 조그마한 碑石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읽혀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덕수부락에 玄이라는 姓을 가진 사람이 老父를

모시고 살고있었다. 그러나 집이 워낙 困窮하였으므로 그는 官家의 下人으로서 있으면서 父親을 모셨다. 그러던 중 부친이 衰하여 老患으로 들어눕게 되었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老父를 위해 약 한첩은 커녕 朝夕을 제대로 이어드릴 처지도 못 되었다. 자식된 道理로서 이런 사정이 그에게 悲痛스러운 일이었으나 찢어지게 가난한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 병세는 점점 어려워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날, 마지막으로 老父에게 소원이냐 말씀해보시라고 하였다. 아들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부친은 그만두라고 하였지만 아들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서, 그럼 고기나 먹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부친의 말을 들은 玄氏는 고기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가난한 그에게는 고기를 구할 만한 돈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에 골몰하며 동네에서 나와 동쪽으로 하릴없이 걸어가는데, 至誠이면 感天이란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뜻밖에도 꿩 한마리가 날아와 자가 몸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마침 고기를 구하던 玄氏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부친에게 드릴 수가 있었다.

後에 이런 사실을 안 동네 사람들은 玄氏의 지극한 孝誠에 하늘이 感動한 것이라 하여 그를 찬양하고 孝子碑를 세웠다 한다.

(說話傳承者; 吳癸亨·男 : 77才)

나. 貧家의 孝婦

시골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몇 번이나 과거에도 응시하였으나 그 때마다 번번히 떨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생활은 날로 쪼들려 들어갔다.

그러던 이 선비의 집안에 이 선비의 생일날이 닥쳤다.

가난한 살림에서 생일잔치를 차릴 수가 없었다.

이집 며느리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남편과 시부모를 극진히 잘 모시는 것이었다. 시아버지 생일날이 닥쳐왔는데도 가난하기 때문에 생일잔치를

차릴 수 없음을 고민하던 끝에, 자기의 긴 머리를 싹뚝 잘라서 장에가서 팔았다.

얼마간의 돈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 며느리는 그 머리를 판 돈으로 생일 잔치를 초라하게 차려 놓았다.

밤이 깊었다.

暗行御使가 지나가다 보니 밤이 깊었는데 자짓불 켜놓고 춤추는 사람과 웃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發見하였다.

가만히 보다가, 「이것은 심상한 일이 아니다, 꼭 무슨 事緣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들어섰다. 그 緣由를 물은 즉 老人선비가 「喪家僧舞老人哭」이란 句節을 적어 놓았다.

喪을 만난 집에서 僧이 춤을 추는데 老人은 웃을 한다는 것이다.

며느리는 머리를 잘라버렸으니 僧과 마찬가지로인데, 자기의 머리를 잘라 시아버님의 생일을 차릴 수 있었으니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이요, 시아버지인 老人은 며느리의 그 誠意에 감격하여 영영 痛哭을 하고, 이래서 이 선비의 집안은 갑자기 初喪을 만난 집이 되었다는 것이다.

暗行御使는 感嘆하였다.

뒤에 老人을 불러 科擧를 보게 하니 合格. 이 가난한 선비의 집안에 幸福이 찾아들게 되었다.

(說話傳承者; 李達彬·男 : 83才)

다. 烈女 碑

現 中文우체국 바로 옆에 烈女碑가 있는데 그 由來는 다음과 같다. 옛날 나라에서 매마침 자 고을마다 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碑를 세워, 모든 사람에게 訓導를 주도록 하라는 습이 있었을 때였다. 이 즈음에, 金 창언이라는 사람이 병으로 앓다가 자식과 젊은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러자 가장 크게 슬퍼한 것은 그의 젊은 아내였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한 나머지 이승에서 남편을 끝까지 모시지 못한 것을 저승에서나마 모셔보겠다는 결심으로 남편을 장사 지내는 날

下棺다음에 숨어 얼굴도 보이지 않고 슬퍼하다가 끝내 상옷끈으로 목을 매어 남편의 뒤를 따르고 말았다.

뒤에야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그녀를 烈女로 稱하게 되고 이 사실이 官에 알려지자 烈女門과 碑를 세워 그 지역을 열녀마을이라고 부르게 됐다.

원래 이 碑의 위치는 지금의 위치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었으나 일주 도로를 만들 때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듯 하다. 그리고 그녀의 後孫으로는 지금 재일교포인 金 민기氏가 유일한 후손이다.

〈說話傳承者·이호진(男:72才)〉

6. 其 他

가. 梁氏 墓에 얽힌 이야기

예촌地方에 厚德한 梁氏가 살다가 돌아갔다.

아들이 三兄弟 있었는데, 그 무렵 마침 陸地에서 들어온 정시(地官)가 있어, 그 정시를 모셔다가 산터를 찾기 시작 하였다. 아침이 되면 이 정시를 앞세우고 앞에는 큰아들, 다음은 셋아들, 맨 뒤에는 작은아들이, 이렇게 서서 들로 나서서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이 정시와 三兄弟가 孝教「상효운」地境, 「허더케친 밭」을 지나가게 되었다. 큰 상주는 앞을 가고 셋 상주가 마치 보니 길가에 거지 한 사람이 넘어져 신음하고 있었다. 셋 상주는 「아버지는 벌써 떠났다. 이 사람은 조금만 동정하면 살아날 것이다. 이 사람을 救함이 어땠가?」 형과 아우에게 말했다. 셋 상주의 이 말에 형은 반대하고 아우는 찬성했다.

형과 정시는 올라가 버리고 동생 兄弟는 그 患者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兄의 지성어린 간호로 이 거지는 목숨을 되돌렸다.

回生한 거지는 말하기를 「누구가 저와같은 사람을 救해 줬니까? 당신네들은 참으로 너그럽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집에 무슨 願이 있으면 報答하고 싶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동생 두 兄弟는

「집에서는 하나의 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別世하셨으니 神位地를 求하는 것이 큰 所願입니다.」

거지 손님은 그 墓地를 求해 주겠다고 約束하였다.

큰 兄은 미친 놈이라고 비웃었다.

동생 들은 거지 손님과 들로 나서서 「영천오름」에 올라 놀다가 내려왔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이 일만 되풀이했다. 이러기를 7일을 지냈다.

7일이 다 된 마지막 날 거지 손님인 정시가 말하기를

「동백나무(冬栢나무)을 꺾어 큰 상제는 머리에 찌르고, 셋 상제랑 가운데 찌르고, 작은 상제랑 발을 찌르라」했다. 地形을 봐서 윗쪽을 머리라고 한 것이다.

冬栢나무 가지를 三太星 모양으로 땅에 꽂아 놓은 것이다.

뒷날 거지 손님인 정시가 말하기를, 자기가 찢러둔 동백나무 가지를 뽑아오라고 하였다. 동백나무 가지를 뽑아온 것을 보니, 큰 상주가 찢른 것은 발(뿌리)이 조금 나 있고, 셋 상주의 것은 잎이 파릇 나 있고, 작은 상주의 것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다. 산을 쓰려면 작은 상주가 찢러둔 자리에 쓰라고 했다.

兄弟는 거지 정시에게 선사를 하니 굳이 사양하였다. 三兄弟는 父親의 장사를 다 치뤘다. 거지 정시는 어테론가 떠났다.

「앞으로 선생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서울 가서 北門 뒤를 올라 감시민 비자리 초막이 있습니다. 그 비자리 초막에 찾아가서 신 삼는 威氏를 찾음서…」 이렇게 말했다.

三年喪이 다 지나고 동생은 선물을 마련, 이 정시를 만나기 위해 上京했다. 北門을 올라가다가 비자리 초막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威氏가 있었다. 정시 말을 했더니 「밤에 선생님을 만날 수 있으니 저녁 먹고 오시오」했다. 저녁에 다시 신 삼는 威氏를 찾아 갔더니 威氏는 北斗七星을 가리키면서 「저 가장 밑에 있는 별이 선생이요」라 하는 것이었다.

동생 梁氏는 가지고 간 선물을 그 방향으로 놓아 三拜하고 돌아왔다.

뒤 長孫派는 끊어지고 다른 兄弟 後孫派는 크게 蕃盛하였다.

(說話傳承者; 姜太益·男: 69才)

나. 金大監 터

中文里에 김대감 터라는 집터가 있다. 옛날 金大監이 살았던 터라고 한다. 金大監은 마음씨가 고약해서 弱한 部落 사람들을 酷毒하게 부렸다 한다.

그는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만 보이면 집으로 불러들여 일을 시켰다. 혼자가는 사람이 보이면 불러들여 「혼자가다가 눈에 가시 들린 누계가 내어주느냐? 우리 집에 와서 일이나 하라.」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킨다.

둘이 가고 있다면 불러 들어서

「둘이 가다가 서로 다투면 누계가 멀려주느냐? 우리 집에 와서 일이나 하라」 이렇게 해서 일을 부렸다.

백성들은 이 金大監으로 하여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여 주시라고 官에 陳情을 했다. 官에서 와 봤더니, 金大監 집에는 네 귀에 풍경을 달았다가 모두 무질러버리고 기둥도 둥근 기둥을 하고 있다가 모나게 꺾고 있었다.

官이 묻는 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였더니, 집을 짓고 나서 바빠서 손을 못봐 있다가 이제야 손을 본다고 속였으나, 모두 알고 있는 터이라 잡아가두었다.

잡아가는데 큰 아들이 뒤를 따랐다 .

金大監은 누가 나의 뒤를 따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큰아들이 따라 오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金大監은 「아차 큰 일 났구나!」 失望을 했다. 큰 아들은 머리가 시원치 못한 것을 金大監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官에서는 金大監을 답달했다.

金大監은 끝까지 아니 했다고 우겼다. 다음에, 누구가 金大監을 따라왔는가 보니 큰 아들이 따라와 있다.

큰 아들에게 그 일을 물었다. 큰 아들도 자기 아버지는 그런 일이 없다

고 우겼다.

官에서는 「왜 아버지는 했노라는데 너는 우기느냐?」하더니,

「아버지가 했쟁 해시민 해십주」 이렇게 말해 버렸다.

官에서는 金大監을 잡아 죽이고, 그 터에는 못을 파 버렸다.

現在는 이 못을 데워 집을 짓고 있는데 아직도 못의 흔적은 남아있다.

(說話傳承者; 高基兒·男: 74才)

遺 物 · 遺 蹟

指導教授	沈	汝	澤
班 員	高	才	弼 (圖三)
	高	廣	澤 (圖三)
	金	斗	善 (圖三)
	姜	性	均 (圖二)
	金	秀	哲 (圖二)
	鄭	景	愛 (圖一)

目 次

- I 調查目的 및 意義
- II 調 查 內 容
 - 1) 法華寺址 2) 任觀廟의 詩
 - 3) 절구방아 4) 松木宅의 縣廟址
 - 5) 기 타
- III 結 語

I 調查目的 및 意義

人間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든, 볼 수 없는 것이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변화의 여지가 가득차 있다.

변화로 가득찬 人間의 生活에 있어서도, 그 수단이나 방법은 시시때때로의 변화를 가져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生活手段이나 방법의 변화는 과거보다 더 나은, 그리고 현재 보다도 더 나은 生活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임도 주지의 사실이다.

더 나아지기 위한 生活의 追求 중에서도, 사라져 갈 조상의 일을 발굴하고 돌이켜 음미함은 이러한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遺物遺蹟을 발굴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난날의 生活樣相과 社會樣相이 현재와 미래의 生活樣相과 社會樣相에 影響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이번에 처음으로 行해진 遺物·遺蹟 분야는 좋은 감도 없진 않으나 꼭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선 조사 대상 지역인 中文面에 들어가기 전에 本道에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考古學的 由來가 대강 언급됨이 당연하다 하겠다.

풍경이 아름답고 기후가 溫和한 地圖上의 韓半島는 氣候的·地理的 條件 등으로 볼 때, 舊石器時代가 存在하였음직 하나 뚜렷한 구석기 시대의 유물·유적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것들이 시원하게 發見되지 않다가, 日本人이 구석기시대의 骨角器 등을 발굴하였고, 그 후 부터 國內 考古學者 및 대학발굴단 등이 本格的인 발굴작업으로 구석기시대에 人類가 韓半島에 生存했으리라는 推測이 事實化 되었다.

韓半島의 北쪽은 漢나라 文化의 影響을 받았다고 하지만 南쪽은 地理的으로 떨어져 北쪽과 똑 같은 文化的 影響을 同時에 받을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해서 本島는 金石併用器時代에 居民이 살지 않았으나 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銅製品인 遺物과 支石墓 등이 發見되었다.

이 銅製品인 遺物과 支石墓 등을 들어 先住民의 生活樣相이나 社會樣相이 어떠하다고 단언하기는 극히 위험한 일이며, 계속 이 분야에 집중적인 발굴 작업이 學究的이고 科學的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傳說만이 앞섰던 本島에 이 傳說을 뒷받침할 正確한 史實을 캐내는 것이 急先務라고 하겠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번 조사는 광범위한 本島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지역 즉 南濟州郡 中文面을 정해 실시 되었으며, 후세에 남긴 물건, 땅위 또는 땅아래에 남겨진 인류문화의 흔적을 遺物·遺蹟이라 定義할때, 이번 調査는 地上을 中心으로 行해 졌음을 밝힌다.

Ⅱ 調 査 內 容

1) 法 華 寺 址

所在地：中文面 河源里

高麗末 元宗 14年 (西紀 1273年) 4월에 本島에서 항거하던 三別抄를 高麗·蒙古'연합군이 토벌로 平定시키고, 같은 해 6월에 元나라는 이 곳에 達魯苑赤總管府를 設置하고 아직 저항하는 宋나라를 치는 원대한 전략에서 인지 日本征服을 뜻하고, 本島를 전초 기지로 한 후 부터 元에 직속되었고 元나라 사람이 往來가 잦아져 元의 佛敎와 神敎가 이 때에 많이 들어 오게 되었다.

법화사는 濟州市 所在 觀音寺와 함께 本道 佛敎의 효시라 할 수 있는 寺刹이다.

화북여자 안복녀라는 여스님이 건립했다는 說과 함께 700여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사연속에 자란 절이다.

高麗時代 혜일국사가 산방굴사에서 이 곳을 지나며 道를 닦고, 寺刹을 창건했다는 기록이 비문에 남아 있고, 그후 李朝時代 불교와 미신을 탄압할 때, 제주도에 미신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堂五百, 寺五百을 불태워 없애면서 法華寺도 소각됐다.

다시 60여년전에 안도월 스님이 절을 復元했으나 4·3사건때 과거 건물 이 소각됐고, 현 건물은 불과 20여년전에 세워졌는데 과거 復元 됐을때의 절터와는 위치가 다른 것이다.

法華寺와 가까운 거리에 왕자 무덤이라는 곳이 있다.

말을 타고 가던 왕자가 죽어서 묻었다는데, (주위에 말 무덤도 있음) 그 왕자묘의 반석과 법화사의 주춧돌이 성질과 모양이 같아, 왕자가 유배 내지는 귀양을 와서 지내던 일종의 궁궐터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20여년전 당시 주지 스님이 현몽에 의하여 찾아진 섬세한 技巧의 11個의 주춧돌이 新寺 앞마당에 있어 유일한 증거일뿐 그 이상의 발굴도 조사

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화사지 주춧돌 A〉



〈법화사지 주춧돌 B〉



〈법화사 대웅전〉

2) 任觀周의 詩

所在地：중문면 중문리

絶海孤島에 우뚝 선 한라영봉, 소복히 쌓인 하얀 눈에 눈부신 태양이 비취 푸른 하늘에 반짝이는 그 곳에서 서남쪽으로 시선을 내리면, 바다와 맞 닿는 곳에 마치 앙상한 나무가지 위에 안락한 새둥우리 같이 검은 부분의 녹지대가 보인다. 3단의 괴기한 기암절벽을 뚫러 허연 물을 푸른 바다로 토해 내고 있는 이곳을 이름하여 天帝淵이라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5년전 李氏朝鮮 英祖代에 이 곳으로 유배를 온 한 선비가 폭포의 절경에 매혹되어 제1폭포 암벽 서쪽 중앙에 詩를 새겨 놓았으니, 그가 골

任觀周라는 사람이다.

한여름 햇빛이 뽕뽕 내려 썩일때도 우거진 나무들 때문에 어두운 곳인데, 이 詩를 암벽에 착~달라 붙여 한 글자 한 글자 뜯어 보아야 알 정도여서 부심한 風雨에 얼마나 견딜까 안타까운 마음이다.

세월은 흐르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人間의 旅情은 똑같아 客의 마음을 限量없이 만드는가 보다.

一. 天地開闢大瀑流

移來叢石壁深湫

二. 空中負箭蕩人步

第一奇觀此射幟

天地가 열릴 때 큰 폭포의 흐름이 있어
石壁으로 모여들어 깊은 못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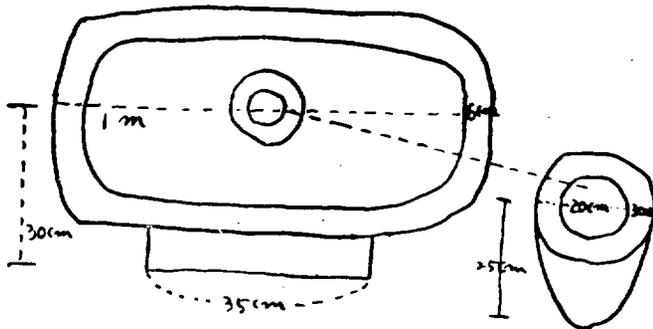
공중에 살을 맨 허수아비가 줄을 타네.
이 활쏘기보다 奇觀인 것이 어디 있으랴.

註: 옛날 牧使나 縣監이 이 곳에 와서 활쏘기를 하는데, 칩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줄에 달아 공중에 매여 달렸으므로 살을 맞아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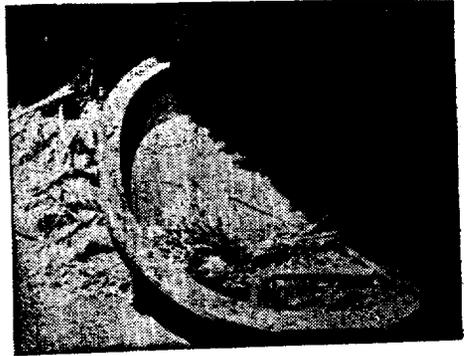
3) 절 구 방 아

所在地: 중문면 하원리

약 400여
년전 所有
者 오만백
(55)氏의
조상이 쓰
던 것으로
材料는 저



밤나무로 (열매가 도토리 비
 숯) 만들어 졌으며, 중간에
 돌려 된 곡식이 들어가는 홈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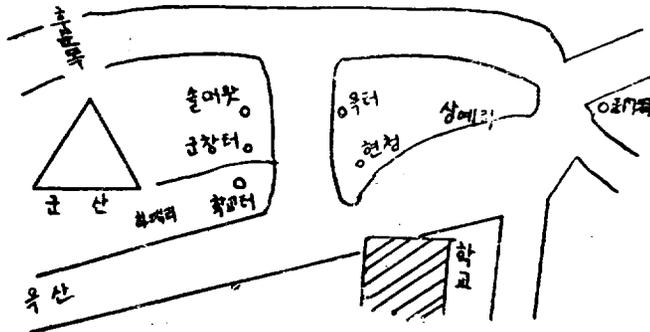
〈오만백氏 소유 절구방아〉

4) 松木宅의 縣廳址

所在地 : 중문면 상여리

여래현 설치로 보아서 1500년전 新羅의 종속국으로 있을 때의 縣廳址
 이다.

지금의 <지방물터>가 「옥터」, <창고왓>이 「軍倉터」, <兵幕다루>가 「兵
 솥터」, <어름비집터>가 「鄉廳터」, <솔대왓> (귀신을 섬기던 곳)이 傳하고
 있고, 正門洞이 出入正門이요, 後門목이 후문못이라 傳하고 있으며 <옥산
 이 울래>가 옥직이가 살았던 곳이라고 傳하고 있다.



〈松木宅의 縣廳址〉



<현청이 있던 그곳에 지금은 풀나무가 심어져 풀향기가 자욱한데, 300년 묵은 초가집이 서있을 뿐이다.>

5) 기 타

○ 들돌 (힘돌)

삼간 초가 위에 박같은 둥근달이 동에서 두어발쯤 올라 느티나무 위에 걸리면 하루 일을 끝내고는 허리띠를 풀러 가면서 까지 저녁을 푹푹 먹은 젊은이들이 하나 둘 모여 든다. 젊은이들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것 저것 해보다 힘 겨루기를 한다. 큰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힘을 가졌다고 자부할 나이들이다.

들돌은 이때에 들려지는 돌이다. 그래서 힘돌이라고도 한다.

하원리에 있는 들돌은 200년전 어떤 여자가 치마통에 감싸 4km나 되는 바닷가에서 가져온 것이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로 땅을 다지는데 사용도 한다는 이 들돌의 무게는 보통 백미 2가마 무게인데, 몇년전만 해도 힘센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더구나 女자가 운반해 왔다는 이 돌을 들어 올렸을 때의 자랑스러



<하원리의 들돌>

움보다 들어 올리지 못함으로서 갖는 젊은이들의 흥리가 어떠했을까 생각할 때 야속하기만 한 돌이다.

廻水里의 돌들은 부딪쳤을 때 쇠소리가 나는 희귀한 돌이다.

하얗은 돌 같지만 우리 조상들의 낭만이 깃든 이 돌들이 길가 아무데나 굴러다니는데 섭섭함을 금지 못했다.

Ⅱ 끝 맺 음

물멍어리 같은 산길·바닷길을 돌아다니면서 体系的이고 學術的인 調査와는 얼마나한 거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自身대로의 調査方法과 記錄을 하면서 애써 왔다.

그렇기는 하나 이번 遺物·遺蹟調査班이 이 部分에 대한 本格的이고 專門的일 수 있는 史學徒도 아니고, 더구나 調査上의 技術(史的考證을 併行하는 등)도 미흡했음을 솔직히 밝히고 싶고, 구체적으로 깊이 調査했다기 보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데 더 큰 意義를 잡았다.

이번 調査를 통하여 몇가지 問題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다.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오르내리는 傳說上의 遺物·遺蹟과 실제 現存되어 있으리라는 遺物·遺蹟이 있으나, 그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發掘과 確실한 史的考證을 할 技術的인 問題라든가, 調査에 들어가기전 確실한 情報에 의한 조직적인 계획을 앞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그냥 널려 있는 것이나 남몰래 묻혀 있는 것이나 서둘러 발굴해서 本道 文化財로서의 保存을 받아야 할 問題도 있다. 그 例로서 증문면 상에리에 東寺·西寺址가 있는데, 東寺는 거뭇절이라 칭하여 俗稱 남바치에 있었고, 西寺는 상에리 서쪽 3113번지인데 270여년전 節制使 李衡祥이 당시 山房뒤 廣靜堂을 소각, 即後 淫祠佛宇 130余所를 焚燒하고 巫覡 400余名을 農業으로 轉職시켰다. 그런데 東寺 돌부처가 1965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저기 굴러다니다 無知의 사람에 의하여 몇장 수에게 팔려져 버렸다 한다.

이와같이 제멋대로 곳곳에 묻혀있을 文化財를 찾아내 保存함이 시급하다. 아울러 학술적인 調査에 의한 体系화된 計劃을 세우고, 개별적인 발굴과 그에 대한 史的考察을 거치는 多角的인 研究方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海 女

指導教授	金	榮	敦
班 員	梁	順	烈 (圖四)
	金	奉	均 (圖二)
	金	貞	姬 (圖一)

目 次

- I 大浦里와 海女
- II 作業과 採取物
- III 海女の 出稼
- IV 海女器具 및 收益

I 大浦里와 海女

大浦里는 濟州 本島의 어느 地域 못지 않게 作業이 活潑한 곳이다.

따라서 海女作業이 그만큼 極盛스럽다.

大浦라는 名稱이 <큰개물>을 뜻하듯이 中文面內에서도 제일 큰 漁場을 갖고 있다. 組合에 加入된 海女數만 보더라도 中文面內에서 大浦里 海女가 얼마나 優勢한가를 알 수 있다.

穡達里인 경우 組合員인 海女가 28名 中文里인 경우 22名이다. 그러나 大浦里인 경우 組合員인 海女가 80名이나 된다. 거의 이 두 마을의 3배가 넘는다.

그러나 이 80名 이외에도 非組合員이 100名가량 되며 潛在的으로 있는 海女를 想定해 볼 때, 300名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1家口當 3人의 海女가 있는 家口數가 많고, 家家戶戶 海女 없는 집이 없다.

이들은 海女 作業外에도 農事일이 되면 作業과 兼行하여 農事일을 거둔다.

보리베기·고무심기 등 播種과 耕作에 따른 일들의 대부분이 이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번 들에 나가면 6時間에서 8時間동안 일한다.

또한 大浦里가 柑橘農家라는데서 果樹園을 들보는 데도 이들이 힘이 적극 필요로 하고 있다. 海女들이 採取한 海藻類가 밑거름으로 쓰여진다.

75年度인 경우는 미역이 한 斤당 50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미역 거리가 果樹園 거름으로 쓰여졌다.

우리가 調査하러 간 때만 해도 소라 許採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마을 里事務所의 스피커를 통해 許採時間을 알리면 마을의 海女들은 온통 바다로 향한다. 이 때에는 家族全部가 動員되어 바다로 나간다. 점심을 싸 들고 애기와 지금까지 作業을 쉬던 老婆海女 그리고 男子들도 모두 나선다. 여름의 뜨거운 피약벌을 피하여 평퍼짐한 자갈밭에 천막을 치거나 시원한 바위밑을 찾아 家族끼리 자리를 잡는다. 作業이 始作되면 해가 지는 저녁까지 계속된다.

作業中 틈틈히 海女들은 家族들의 자리를 찾아와서 애기에게 젖을 물리고 휴식을 잠깐 취하곤 계속 作業한다.

男子들은 海女들의 採取한 것을 거둔다. 이런 날이면 老波海女들은 옛날 썼던 海女器具를 들고 나와서 젊었던 時節의 作業技倆을 발휘해 본다. 젊은 海女들보다 앞서 潛水하여 옛날 그대로의 모습대로 팔팔한 혈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作業은 무려 4~5日間 계속되어 진다. 다른 採取物의 許採해도 大同小異하다.

II 作業과 採取物

大浦里 海女の 裸潛漁業 方法은 <갯물질>이다.

따라서 大浦里는 <갯물질>의 典型的의 地域이라 일컬을 수 있다. 濟州 本

島の 城山面 吾照里나 加波島 같은 데는 <又물질>과 <옛물질>을 併行하지만, 大浦里는 牛島처럼 <又물질>만 한다.

<又물질>이란 바닷가에서 그냥 헤엄쳐 나가서 作業하는 것을 말하고, <옛물질>이란 作業할 場所까지 배를 타고 나가서 作業하는 것을 뜻한다.

大浦里 海女들이 作業할 수 있는 場所는 大浦里 앞바다에 限한다. 中文面 一帶의 바다는 里 단위로 各各 里마다 자기네들의 作業할 場所를 區分하고 있다. 이 帶의 各里의 作業場所는 天帝淵에서 흘러내리는 河川을 境界線으로 하여 區分한다. 各里의 海女들은 자기 자기리에 해당하는 바다에서 作業할 수 있을 뿐, 같은 中文面 海女일지라도 다른 里의 作業場에 가서 作業할 수 없다. 大浦里 海女가 中文里 海女の 作業場所에 가서 入漁할 수 없고, 中文里 海女가 大浦里 作業場所에 가서 入漁할 수 없다. 서로 자기네 漁場에 他里海女가 와서 作業하는 것을 禁止시키고 있다.

大浦里에서는 海女들을 가리켜 보통 부르는 名稱은 <좁수>·<잠수>·<좁네>라 한다. 이들 名稱은 濟州本島의 吾照里, 牛島, 加波島 등 他地方하고 다른 바는 별로 없다. 또한 이들에게 作業技術上 區分하여 부르는 名稱이 있다. 물속 12길 (약19m)까지 潛水하는 海女를 上軍(<큰좁수>·<큰잠수>·<왕좁네>)이라 부르며, 上軍보다 技術이 뒤떨어지는 海女를 中軍(<중좁수>·<중잠수>·<중좁네>)라 부르며, 中軍보다도 뒤떨어지는 海女를 下軍(<작은잠수>·<작은좁수>·<작은좁네>)라고 부른다. 또한 이 이외에도 약간 特異한 <불락좁네>·<고망좁네>라고 부르는 名稱이 있다. <불락좁네>란 上軍·中軍과 比較했을 때 作業技術이 뒤떨어지는 海女를 이르는 말이다. 作業技術이 거의 下軍과 같다. 다른 海女들은 採取하기에 한창인데 <불락좁네>는 採取物도 제대로 採取못하고 물밖으로 나와보면 <테왁>만이 저 멀리 두둥실 떠있어 <테왁>을 잡으려 헤엄쳐 나가는 모습이 <불락불락>하는데서 불려진 말이다. <고망좁네>란 매일 極盛스럽게 作業하는 海女가 보기에 집에서 家事를 돌보다 가끔 作業하러 나서는 海女가 있다. 이런 海女를 두고 <고망좁네>라 부른다. 즉 집안에 박혀있다가 나왔다고 해서 불려진 말이다.

12길이나 潜水하던 上軍도 나이가 들어가면 作業技術에 差異가 생긴다. 70才의 <이 병생> 노파는 55才때까지만 해도 上軍이었다. 그러다가 55才以後가 되면서 作業技術에 差異가 생겼다. 그것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물속 採取物을 얼른 알아볼 수 없어가고 숨이 가빠져서 호흡 길이가 짧아져 갔다고 했다. 결국 上軍이었던 作業技術이 <불락좁네>만큼밖에 못하게 되었다 한다. 또한 89才의 <김 수경> 노파의 말을 빌리면 노파가 처음 作業始作할 때만 해도 水鏡을 안쓰고 採取했었다 한다. 물속에 들어가 손으로 더듬더듬 만져보아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소라나 전복인 줄 알고 採取했었고, 또한 물속에 희끗희끗한 게 보이면 미역인 줄 알고 採取했었다 한다.

한편 <김 주정> 노파는 나이가 들었어도 젊었던 時節에 作業하던 經驗을 잃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한번은 한창 바쁘게 採取作業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採取를 하고 있던 나이든 海女가 “<죽은년>아”라고 부르며 여가 작은 구멍안에 큰 전복이 있으니 좀 캐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에 구멍 밑에 손을 넣고 빗창으로 전복을 캐줬다 한다. 왜 그때 나이든 海女가 자기같이 캐내는 方法을 물랐을가 하는 疑問과 나이든 海女가 못한 것을 어린 자기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된다고 했다.

作業이 한창 極盛일 때는 解産을 바로 앞둔 滿期 이된 海女도 解産 바로 直前이나 1日前까지 作業한다. 解産을 하면 보통 10日에서 15日間 몸조리하는 海女도 있지만 대부분 5日이 지나면 곧 바로 作業에 나선다. 더구나 解産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作業에 나서는 海女도 종종 있다.

作業中에는 가끔 被害를 주는 고기가 나타난다. <솔치>·<물새악>·<물새기>라 부르는 것들이다. <솔치>나 <물새악>을 물리면 통증이 심하고 부풀어 오른다. 아픔에 못견디는 海女는 그 자리에서 누워딩쿨지만, 이 반면에 물려도 아무런 통증도 일어나지 않은 海女도 있다. <물새기>가 바다에 보이면 海女들은 一切히 바닷가에 나서서 <물 알로 가라>·<물알로 가라>고 외친다. 이것은 물밀므로 가라고 외치면 <물새기>가 물밀므로 해서 가버린다는 그들의 생각에서다.

作業은 11個月間의 물의 潮水에 따른 밀물과 썰물이나에 따라서도 影響을 받는다. 썰물 때가 되면 먼 바다에까지 나가서 作業할 수 있다. 이 때는 다른 때 보다 作業이 더욱 極盛스러워진다.

大浦里 海女 一切가 作業에 나선다.

이 때에는 집에서 쉬는 海女가 거의 없다. 밀물 때만 해도 가까운 바다의 4-5질에서 作業하던 海女들이 이 때에는 12질까지 潛水한다.

季節的으로는 여름철이 되면 5~10名씩 小集團을 이루어 그늘진 시원한 바위밑을 탈의장으로 삼고 作業한다. 그러다 겨울철이 되면 大浦里 海女 全体가 大集團으로 <불턱>을 中心으로 모여든다. <불턱>이란 作業이 끝나면 불을 피워 몸을 쪼이며 휴식을 취하는 場所를 말함이다. <불턱>에 가서 불을 피우는 떨감으로는 집에 있는 보리짚이나 조짚 등을 사용하며, 그런 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雜草를 캐다 사용한다. <불턱>은 海女들의 話題의 場所다. 採取時 숨길이가 짧았다는 등 潛水中 水鏡에 물이 들었다, 採取時 발이 돌에 걸려더라, 採取物을 떨어뜨렸다, 전복이 어느 구멍안에 있다, 採取物을 못건져왔다는 등의 온통 潛水와 採取物에 따른 이야기가 오고 간다.

각기 자기의 經驗에 따른 이야기를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이 곳은 서로가 자기의 採取物을 比較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누가 量·質的으로 優勢한가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大浦里 海女作業 始作 年令 平均은 16.9才로 나타난다. 牛島 海女の 平均 15.2才 보다 높고 加波島 海女の 平均 20才보다 낮다. 이것은 <表1~2~3>을 보면 알 수 있다.

大浦里海女作業始作年令

<表1>

對象：大浦海女
1975年 8月 調査

作業始作年令	11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비	고
人 員	2	2	1	2	2	5	3	3		평균연령 16.9세	

牛島海女作業始作年令

<表2>

對象：牛島海女
1973年 8月 調査

作業始作年令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비	고
人 員	2	1	1	0	2	14	7	1	6	6	1	평균연령	15.2세

加波島海女作業始作年令

<表3>

對象：加波島海女
1974年 8月 調査

作業始作年令	12세	14세	15세	17세	18세	20세	비	고
人 員	6	1	3	4	6	8	평균연령	18세

물론 여기 나타난 平均 年令前에도 作業은 한다. 그러나 平均 年令이 되면서 本格的 作業이 始作되는 것이다. 牛島海女보다는 1.7才의 차이로 本格的 作業 始作 年令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加波島보다는 훨씬 빠르다. 加波島보다 3.1才나 앞서 作業을 始作하고 있다. 이런 作業 始作 年令에 差異가 생기는 것은 바다의 水深이 깊고 얕음과 波浪이 얼마나 거친가에 따른 影響으로 보인다. 그만큼 大浦里 바다가 加波島보다 水深이 얇고 波浪이 덜거칠다고도 볼 수 있다.

大浦里의 月別 平均 作業日數가 많은 달은 陰曆 1月이다. 이것을 加波島와 比較했을 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表4>를 보면 알 수 있다.

大浦里에서의 陰曆 1月은 가장 作業이 極盛한 時期이지만 加波島에서의 1月은 作業이 뜸해질 때이다. 加波島는 날씨가 추워져가고 寒波가 몰아쳐 가면 作業이 뜸해진다. 氣溫이 따뜻해질수록 作業이 활발해진다. 大浦里인 경우는 加波島만큼 氣溫의 影響을 받지 않은 듯하다. 大浦里 海女와 加波島 海女는 모두 農業에도 從事한다. 그러나 大浦里 海女가 加波島 海女보다 農業에 從事하는 時間이 많다는데서 農事일이 月別 作業日數에 影響을 주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가장 추운 겨울철이 月別 作業日數 平均中 가장 많은 달이라는 것과 5月과 9月에서 11月 사이가 作業이 뜸해진다

는 것이다. 반면 加波島는 이 時期가 12月에서 2月사이만큼 平均 作業日數가 낮지 않다는 점이다. 大浦里에서 5月과 8月에서 11月사이는 收穫과 播種으로 바뀐 時期다.

大浦里 및 加波島 月別平均 作業日數 對比

<表 4>

大浦海女: 1975年 8月 調査
加波島海女: 1974年 8月 調査

大 浦 里				加 波 島			
月別	月 間 平 均 日 間 作 業 日 數	1 日 平 均 潛 水 回 數		月別	月 間 平 均 日 間 作 業 日 數	1 日 平 均 潛 水 回 數	
1	13.1日	2.4回		1	6.5日	1.7回	
2	9.3	2.3		2	8.6	1.8	
3	8.7	2.4		3	12.6	2.0	
4	8.5	1.8		4	14.6	2.3	
5	7.8	2.1		5	13.5	2.4	
6	10.9	2.1		6	16.8	2.6	
7	11.6	2.3		7	16.5	2.8	
8	8.4	1.6		8	16.5	2.8	
9	5.2	1.4		9	14.2	2.2	
10	4.3	1.3		10	12.1	2.1	
11	5.4	1.7		11	8.7	1.8	
12	8.1	1.9		12	6.2	1.7	

이 時期에는 農事일 때문에 海女作業에 전념치 않은 海女가 생겨나고 農事일의 틈을 내어 作業하러 나서는 海女도 생겨난다. 따라서 이 時期에 月別 作業日數 平均이 뒤떨어짐은 바로 이런데서 오는 것이다.

潛水時間은 陰曆 7月이 가장 길다.

午前 9時쯤에 한번 潛水하면 午後 3時까지 採取作業을 하고, 海邊으로 올라온다. 그리고선 점심을 들고 30分쯤 休息을 취한 다음 또 潛水를 시작하면 저녁 7時가 되어야 採取作業이 끝나고 집으로 歸家한다. 11月과 1月 사이에는 물이 차거워지므로 潛水하는 時間이 그만큼 짧아진다. 한번 潛

水라는 時間은 20分정도가 되고 <불턱>에서 불을 쪼이며 休息하는 時間이 1時間에서 1時間 30分동안 雜談과 함께 걸린다.

月別 平均 潜水回數는 1月에서 7月사이에 거의 2회로 나타난다. 作業이 활발할 時節수록 潜水回數도 2회에 가까움을 알겠다. 大浦里와 加波島는 在來服을 그대로 着用하고 있다는데서 보통 1日 2回 潜水하고 있다고 본다.

極甚한 作業으로 作業中에 藥을 服用하는 海女는 全体 海女の 30名이나 된다.

藥名은 <노신>이라는 藥이다. 이 藥을 服用하는 海女는 每回 潜水할 때마다 먹는다. 보통 1日 2回 복용하고 있으며, 1日 藥 價格으로 約 150원 支出한다. 만일이 藥을 服用하지 않은 날은 潜水도중 머리가 멍하고 頭痛이 일어난다고 한다.

大浦里의 主要 採取物은 <表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主要 採取物은 소라·전복·해삼·미역·룻·문어다. 加波島에서 主要 採取物로 여기는 성게·우뭇가사리·청각·감태 등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採取物을 그들이 부르는 固有한 名稱대로 하면 소라를 <구쟁기>·<쿠쟁기>라 하며, 이것을 또 大·中·小로 나뉘어서 부른다. <대구쟁기>·<중구쟁기>·<소구쟁기>·<문둥쿠쟁기>·<쌀쿠쟁기>·<조쿠쟁기>로 부른다. 전복을 <암첩복>·<숫첩복>·<마드레>로 나뉘어서 부르고, <암첩복>은 껍데기가 고은데 반하여, <숫첩복>은 곱지 않다. <마드레>는 껍데기가 꺼질꺼칠한 것을 말한다. 무겉기는 <숫첩복>이 <암첩복>보다 무겉다.

미역은 그냥 <미역>이라고만 부른다.

소라와 전복은 年中 採取物이다.

4月과 10月사이에는 소라와 전복만을 採取하는 <헛물질> 時期다. <헛물질>이란 소라·전복을 採取못한 경우는 빈 망사리만 들고 올라 온다는 데서 緣由한다. <헛물질>이 미역 採取보다 收益이 높다. 4月이 되어가

면 전복보다 소라 採取가 대부분이다. 6월이 되면 물이 따뜻해져서 깊은水深에 있는 소라까지 採取하게 된다.

大浦里 및 加波島 月別 重要採取物

<表 5>

大浦里海女: 1975年 8月 調査
加波里海女: 1974年 8月 調査

大 浦 里		加 波 島	
月 別	重 要 採 取 物	月 別	重 要 採 取 物
1	소라, 전복, 해삼	1	소라, 전복, 해삼
2	해삼, 전복, 소라, 룯	2	소라, 전복, 해삼
3	소라, 전복, 해삼, 미역	3	소라, 전복
4	소라, 전복	4	소라, 전복, 미역
5	소라, 전복	5	소라, 전복, 성게
6	소라, 전복	6	소라, 전복, 성게
7	소라, 전복	7	소라, 전복
8	소라, 전복	8	소라, 전복
9	소라, 전복	9	소라, 전복
10	소라, 전복	10	소라, 전복
11	소라, 전복, 해삼	11	소라, 전복
12	소라, 전복, 해삼	12	소라, 전복

採取物中 禁採시키는 것은 소라·미역·룯이다. 소라는 몇 地域을 指定해서 禁採시키고 있다. 그 地域으로는 <당악개>·<큰개물>·<검은들>·<테시베기>·<실왓>·<연두밀뒤>다. 禁採時期는 7月 1日에서 9月 30日까지 禁採시킨다. 한편 <당악개>에 局限해서는 5個月間 禁採시켰다. 8月 20日에 許採되면 8月 21日부터 再禁採시켜서 10月 5日後에 다시 許採시키고 있다.

룯은 10月부터 禁取시켰다 2월이 되면 許採시켜 15日間 採取하면 끝나고, 미역은 3月 中旬에 許採시키면 15日이면 採取가 모두 끝난다.

採取物の 禁採 時期는 漁村契에서 決定하고, 許採日의 日字 結定은 里長, 漁村契長, 海女會長, 組合員이 모인 總會에서 決定하고 있다.

73年度에는 政府의 補助金으로 줄미역을 養殖했지만 실패하였다. 다음 해 74年度에 大浦里 個人이 養殖하여 成功을 거두었지만 한 個에 50원 나가는 바람에 별 이익을 거두지 못한다.

Ⅲ 海女の 出稼

大浦里도 濟州 本島의 다른 地域만큼 出稼가 활발한 곳이다.

出稼對象地는 國內로는 九龍浦, 甘浦, 江原道, 양포, 포항, 한산도, 속초, 율포리, 충무, 용덕, 고내섬, 흑산도, 삼무진 등 南韓一帶에 걸쳐서다. 國外로는 城山面 吾照里나 牛島·加波島같이 日帝時代に 對馬島 등지에 出稼했었다.

〈表6〉은 大浦里 海女들의 國內外 出稼狀況이다.

〈表6〉 大浦里 海女들의 國內外 出稼狀況

對象：大浦里海女
1975年 8月 調査

國內 外 區 分	國 內	日 本
出 稼 回 數	1回 2347	12310
出 稼 人 員	453111	1411

56才 以上인 海女들은 거의 一回 以上 對馬島에 出稼한 經驗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 對馬島에 出稼할 때는 10名에서 20名씩 떼지어 出稼했었다. 이 때에 얘기를 데리고 간 海女는 전주에게 얘기를 맡기고 作業을 한다. 對馬島라 할지라도 出稼할 때는 海女 器具는 물론 쌀·이불·食器道具까지 가지고 갔다. 對馬島에 出稼時期는 陰曆 2月初에 出發하면 10月末이 되어서 歸鄉했다. 현 72才의 <이갑리> 노파는 連 10回까지 對馬島에 出稼한 經驗을 가지고 있다. 또 현 70才의 <고 성희> 노파는 23才, 25才 때 2회에 걸쳐 對馬島에 出稼했고 다음은 계속적으로 江原道 2回, 완도 2回

의 國內 出稼를 했다 한다. <고성희> 노파는 그 때 出稼해서 번 돈으로 700坪 畚과 田 500坪, 300坪(2개)를 샀고 자식 7男妹를 공부시켰다고 했다.

國內 出稼인 경우는 법환리에 사는 배 임자가 와서 海女를 모집해 간적 도 있다. 89才의 <김 주정> 노파는 城山浦港에서 <운선>을 타고 부산까지 가면 그곳에서 방어진·바드레·반밀포·완밀포·추밭·당서·정전포 등으로 3年間 돌아다니며 作業하다 歸鄉했다 한다.

江原道에 出稼할 때는 <풍선>에 20名씩 타서 30日만에 도착했었다. 가는 도중 물이 떨어지면 하루종일 밥을 굼기도 했었다.

出稼始作 年令 平均은 27.4才로 나타난다. <表7~8>에서 牛島와 對比하여 보면 牛島의 18.9才보다 늦게야 出稼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表7>

大浦里 海女 出稼 始作 年令

對象：大浦里 海女
1975年 8月 調査

出稼始作年令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5세	30세	비	고
人 員	1	1	1	4	2	4	2	1	1	평균연령 27.4세	

<表8>

牛島 海女 出稼 始作 年令

對象：牛島 海女
1973年 8月 調査

出稼始作年令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비	고
人 員	2	1	5	16	21	11	5	2	1	평균연령 18.9세	

30年前만 하여도 大浦里 海女 30名씩 江原道·莞島·소완도·九龍浦등지로 出稼했었다. 1974年度에는 13名이 出稼했다. 그중 2名은 婦人이고 11名은 未婚女들이다. 73年度에는 3名만이 出稼하고 있다. 이렇게 出稼人員이 減縮되는 現象은 大浦里內에서의 收益도 出稼해서 벌어들이는 收益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데도 理由가 있다.

國內의 出稼時期는 보통 2月 中旬에서 3月初에 出發하면 8月末에서 9月末 사이에 歸郷하고 있다. 利用 交通便은 帆船, 動力船, 旅客船 등을 이 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表9~10>을 보면 出稼地 月平均 作業日數 및 潜水回數가 나타나고 있다.

<表9> 出稼 生活中 月間 平均 作業日數

對象：大浦里 海女
1975年 8月 調査

月間平均作業日數	7日	10日	12日	15日	18日	20日	24日	25日	비	고
人 員	4	2	1	13	1	5	1	11	평균 18日	

<表10> 出稼 生活中 一日平均 潜水 回數

對象：大浦里 海女
1975年 8月 調査

月間平均潜水回數	2回	4回	5回	6回	비	고
人 員	17	4	3	2	평균 2.7回	

作業日數는 18日이고 潜水回數는 2.7回다. 그러나 1日 8回 潜水할 때도 있다 한다. 出稼地에서 生活은 새벽에 밥해 먹고 점심을 싸들고 作業하러 나서면 저녁해가 저물도록 作業한다. <맷물질>일 때는 배안에 <불턱>을 만들어 놓고 나무장사에게서 딸감을 사서 사용한다. 海女들이 <불턱>에 오래 休息이라도 하는 날이면 사공들이 <테악>을 물에 던지며 빨리 作業하라고 성화를 부릴 때도 있다 한다.

出稼地에서 故郷 생각이 간절히 날 때는 農事철이 되면 더욱 생각케 된다.

일손이 모자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걱정과 함께 당장이라도 歸郷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다.

出稼地 採取物 清算 方法은 作業이 끝나서 歸郷할 때 計算하는 完了時와 하루 하루 計算하는 着手時의 2가지 모두 兼行된 것으로 나타난다.

〈表11〉은 出稼地 實際 收領額이다.

平均 73%을 收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의 23%는 船主 謝禮金으로 支拂된다.

〈表11〉

出稼地 實在 收領額

對象：大浦里 海女
1975年 8月 調査

實在 收領額	70	75	80	90	비 고
人 員	28	4	3	3	100% 평균 73%

IV 海女器具 및 收益

다른 地域하고 특별히 다른 海女器具는 없다.

加波島와 비슷한 海女器具가 가끔 있다. 大浦里에 사용되는 머리에 쓰는 〈까바리〉라는 모자는 加波島에 海女들이 쓰고 있는 〈까바리〉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大浦里에서 〈웨눈〉이라고 불리는 水鏡은 몇 사람의 海女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 加波島에서는 이 水鏡을 가리켜 〈코우에 쓰는 안경〉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大浦里에서 이 〈웨눈〉과 改良水鏡을 兼行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加波島인 경우 水壓 때문에 〈코우에 쓰는 안경〉만 사용 될 뿐 改良水鏡을 사용할 수가 없다. 加波島에서 사용되는 망사리의 一種인 〈좁망사리〉가 이곳 大浦里에서는 〈즈래기통〉, 〈조래기〉, 〈합자즈래기〉라 불려 합자를 탈 때 사용하고 있다.

망사리는 〈망삭리〉, 〈망서리〉라고 부르며 거의가 改良망사리를 쓰고 있다. 〈테왁〉은 改良테왁이 대부분이고, 〈죽테왁〉은 120名中 20名 팔로 사용되고 있다. 〈表12〉는 現用海女服 및 海女器具를 말해 주고 있다.

全部가 在來服을 着用하고 있으며 改良服을 가진 8名이 海女가 있을지라도 團體로 着用하는 것을 禁止시키고 있다.

이것은 改良服을 着用함으로써 資源이 없어져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설사 他 地方에 出稼하여 改良服을 입고 作業하다 갖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着用할 수 없다. 服으로는 <물옷>이 유일한 海女服이며 <물옷>속에 티샤스나 스타킹을 반쳐 입고 있다. <속적삼>이 대체로 없음이 눈에 띈다.

<表12>

現用 海女服 및 海女器具

對象：大浦里 海女
1975年 8月 調査

種 類	在 來 服·器 具	改 良 服·器 具
물 옷 (海女服)	20	—
눈 (水鏡)	20	—
망사리 (繩網袋)	—	20
테 왁 (浮栗瓜)	—	20

- 備考：海女服 { 在來服
 改良服
- 水 鏡 { 在來水鏡~족세눈 (小型 雙眼鏡)
 改良水鏡~왕눈 (大型 單眼鏡)
- 망사리 { 在來 망사리
 改良 망사리~나이롱 망사리
- 테 왁 { 在來 테왁~죽테왁
 改良 테왁~나이론 테왁

한 89才의 노파는 처음 作業을 할 때는 눈이 없이 손으로 더듬어서 採取하다, 15才 以後에 <웨빨눈>이라는게 생겨서 그것을 썼다고 한다. 이 <쇠빨눈>이란 소의 빨을 잘라서 유리를 박고 만든 것이다. <웨빨눈>은 <족세눈>이 생기기전 임시로 사용되었다 한다.

그러다 25才 때 <세눈>을 쓰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改良水鏡은 30年前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表13>은 月別 平均 所得이다.

加波島와 對比해 보았다.

<表13>

大浦里 與 加波島 一日平均 收益

1975年 大浦 海女 調査
1974年 加波島 海女 調査

月 別	大浦里, 1日平均 收益	月 別	加波島, 1日平均 收益	비 고
1	1,120 원	1	1,131 원	1人當 收益
2	1,480	2	1,231	
3	1,130	3	1,726	
4	990	4	2,975	
5	1,080	5	2,131	
6	1,490	6	3,263	
7	1,590	7	2,368	
8	1,000	8	3,815	
9	602	9	2,578	
10	597	10	1,800	
11	804	11	1,121	
12	1,072	12	900	